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제8회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



#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교양교육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VIII

발표 1 주제 | 신자유주의는 '청춘'의 내면을 어떻게 바꿔놓았나?

발표자 고봉준 (경희대)

토론자 이효선 (경희대)

발표 2 주제 | '여성혐오'는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

발표자 엄혜진 (경희대)

토론자 이기라 (경희대)

발표 3 주제 | 데이터과잉 시대 디지털인문학과 기억/기록의 정치

발표자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토론자 김성일 (경희대)

발표 4 주제 | CMC 시대의 인간존재와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발표자 이진오 (경희대)

토론자 신충식 (경희대)

2016년 8월 19일 (금) 오후2시-6시

경희대학교 법학관 401호 국제회의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Humanitas Institute for Liber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 초대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구문명이 크나큰 전환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제 눈앞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기계문명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인간이 해오던 거의 대부분의 연산을 대신하고 신문의 스포츠 기사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털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한 것이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의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만드는 산업혁명으로서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제품이 고난도 문제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각종 산업의 생산양식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조직과 통치시스템은 물론이고 사는 방식까지 혁명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지능형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해석하며 자동 갱신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해 자동화된 세계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학을 지배했던 지식은 독창성에 기반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고급지식을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자원,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희소성이 대학의 권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차단되어 있었던 지식이 이제는 완전히 대중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극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접근 가능했던 고급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산실로서의 대학은 이제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여겨졌던 고급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희소성에 기반한 지식으로 그 존재 이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성숙한 전인적 인간을 기르 고자 하는 교양교육은 이제 대학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움이 이제 8회를 맞습니다. 교양교육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통합성과 개방성의 시대를 맞아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비판적 이성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윤리적 감성의 토대 위에 인류의 집합적 장래를 만들어갈 인재를 우리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모색은 계속됩니다. 부디 오셔서 우리의 고민과 모색을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후마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소장 이영준

## 프로그램

**일 시** 2016년 8월 19일 (금) 오후 2시-6시  
**장 소** 경희대학교 법학관 401호 국제회의실  
**주 관**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주 제**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교양교육

**환영사** 한 균 태 경희대학교 부총장 겸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사회** 이 영 준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소장

시간	발표자	주 제	지정토론
14:10~14:50	고봉준 경희대	신자유주의는 '청춘'의 내면을 어떻게 바꿔놓았 나?	이효선 경희대
14:50~15:30	엄혜진 경희대	'여성혐오'는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	이기라 경희대
15:30~15:50	휴식		
15:50~16:30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데이터과잉 시대, 디지털인문학과 기록의 정치	김성일 경희대
16:30~17:10	이진오 경희대	대학은 어디로 진격하고 있는가	신충식 경희대
17:10~17:50	종합토론		
18:00	저녁만찬 (중식당 상그라)		

## 토론자 및 발표자 소개

### 고봉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한국문학(현대시) 전공. 이상과 김수영 문학에 나타난 모더니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계간 <포지션> 편집위원. 지은책으로 <반대자의 윤리>, <다른 목소리들>, <유령들>, <비인칭적인 것> 등이 있다. "예술과 사회"라는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 엄혜진

여성학박사  
(현)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현)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주요논문

박사학위논문(2015),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더 관계: 199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미간행).  
연구논문(2016),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자아 기획의 이중성과 '속물'의 탄생", 『한국여성학』, 32(2).

### 이광석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교수이다. 호주 울런공대학에서 학술연구교수를 지낸 바 있고, 국제 저널 *Internet Histories*와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단독 저서로는 『사이방가드: 개입의 예술, 저항의 미디어』(2010), *IT Development in Korea: A Broadband Nirvana* (2012), 『디지털야만』(2014), 『뉴아트행동주의: 포스트미디어, 횡단하는 문화실천』(2015), 『옥상의 미학노트: 파국에 맞서는 예술행동 탐사기』(2016) 등이 있고, 역은 책으로 『불순한 테크놀로지』(2014)와 『현대 미디어·기술철학의 갈래들』(2016)이 있다. 최근 『문화/과학』 87호(가을) <데이터사회> 특집을 기획 및 책임편집 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기술철학과 디지털이론, 미디어·예술 행동주의, 문화의 정치경제학, 정보공유지 연구, 청년 잉여와 인지가본, 테크놀로지와 노동문화, 빅데이터 감시연구 등에 걸쳐 있다.

### 이진오

2004년 독일 튀빙엔 대학교 철학박사  
서울대, 경인교대, 서울시립대 등 강사 역임,  
2009~2011년 경희대 철학과 연구박사  
2011년 이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중핵교과 객원교수  
2015년 이후 천재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철학교과서 집필진

## 저서

『철학수업』(교재와 교수지침서) 강순전 이진오 공저, 학이시습, 2011,  
『세상을 바꾼 철학자들』 이진오 외 9인 공저, 학이시습, 2015 등 다수.

## 논문

「철학상담 교과과정 연구」(『철학』, 2011)  
「이상 정신 및 행동에 대한 현존재 분석적 이해」 1, 2 (『철학과 현상학연구』, 2013)  
「청소년 치유인문학 사례기반 교재 연구」(『철학연구』, 2016) 등 다수

## 이효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과 현대문학 박사 수료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 강사

## 이기라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중핵교과, 시민교과, 고전읽기를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존의 기술: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이 있으며, 논문은 「인문학적 분열증: 후마니타스 교양 교육의 새로운 도전」, 「프랑스 교양교육의 역사와 이념: 인문교양에서 시민교육으로」, 「에티엔 드 라 보에시와 자발적 예측의 문제」 등이 있다.

## 김성일

고려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문화/과학> 편집위원이며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로 있다. 문화이론 · 문화정책 · 문화운동 · 대중연구 관련 연구와 글을 쓰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대중의 형성과 문화적 실천의 고원들』(2007. 로크미디어)과 『대중의 계보학』(2014, 이매진)이 있다.

## 신충식

신충식(申忠植)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사회과학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철학, 해석학 및 현상학을 전공했다.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 교수(국제어교과 및 한글교과 담당)로 재직 중이다.

## 신자유주의는 ‘청춘’의 내면을 어떻게 바꿔놓았나?

- ‘청춘’이라고 쓰고 ‘기업가적 자아’라고 읽는다

고봉준  
(경희대학교)

### 1. 기업가적 자아의 탄생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인 헨리 지루의 『일회용 청년』(킹콩북, 2015)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한다. “미국의 청년들은 어째서 저항하지 않는가?”<sup>1)</sup> 2010년 전후 유럽 각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고등 교육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그 현상을 가리켜 “전지구적 수준의 정치적 위기와 세대적 위기를 선언하면서, 청년들은 더 이상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살지 않겠다는 주장을 세계로 송출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복지 국가의 해체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유럽 학생들과 달리 미국 대학생들의 저항은 매우 미약했다. 당시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첫째, 미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변화를 선도할 세력이 “특권을 보유한 중산층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주장. 둘째, 지난 30년 동안 미국 학생들은 고등교육이 공공재도 아니고 민주적 공론장도 아니라는 주장에 계속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 셋째, 유럽은 사적인 것이 공적 생활을 완전히 삼키지 못했기에 유럽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비판적 공론장에 접근할 수 있고, 정치권 역시 유명인의 스펙터클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들이다.

헨리 지루는 이러한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 미국의 대학생들 상당수가 빗더미에 앉아 있는 현실과, 현재 목격되는 현상들이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대학가를 휩쓸었던 보수적인 정치 문화 - 우파 계열의 학생 조직이 기업과 보수 정치세력의 막대한 후원을 받으면서 대학에서 권력을 장악한 현상과 진보 진영의 학생들이 시장주의 모델을 모방하는 활동방식을 채택한 것 등 - 의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효과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본과 정치의 고등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과 대학생들의 내면을 포박하고 있는 구조적인 사회적 조건, 즉 개인적인 부채 등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부채로 골수가 빠질 지경인 데다가 양질의 직업도 줄어들고 있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는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보다 넓은 사회적 이슈가 제기

1) 헨리 지루, 『일회용 청년』, 심정보·윤석규 옮김, 킹콩북, 2015, 110쪽.

, 구조적 불의에 맞선 집합적 행동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사회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요즘은 취업 스펙으로 학위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심지어 대학의 사명마저 기업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취업을 위한] 훈련으로 변화하고, 학생들은 소비자로 규정된다. 그리고 교직원은 싸구려 노예의 고용으로 대체되고, “인문계 대학조차 수익 창출 단위”로 변모했다. 말하자면 오늘날 고등 교육은 사회적인 공유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에 대학은 더 이상 투쟁의 거점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학력 공장이 되었다.<sup>2)</sup>

헨리 지루가 ‘구조적인 사회적 조건’이라고 지시한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미국의 대학 풍경은 한국 대학의 그것과 흡사하다. 글로벌 경제의 ‘학력 공장’으로 전락한 것은 미국의 대학만이 아니다. 한 사학의 이사장인 재벌 총수의 유명한 주장 - “대학이 교육의 장이라는 건 헛소리다. 직업교육소다!” - 은 한국 대학의 현실을 외설적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마거릿 대처의 주장, 즉 “사회 같은 건 없다.”의 대학 버전인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고등 교육 현장에 어떠한 왜곡을 초래했고, 그로 인한 대학의 궤도 이탈<sup>3)</sup>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이 글의 직접적인 관심 영역이 아니다. 여기에서 살피려는 것은 자본과 교육의 친화력이 아니라 헨리 지루가 ‘구조적인 사회적 조건’이라고 말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과 자본 친화적인 교육 기구로 전락한 대학의 현실이 대학생들의 내면 형성에 끼친 영향이다. 많은 지식인들은 고등 교육의 기업화를 비판하지만, 오늘날 대학을 ‘직업교육소’로 간주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욕망과 학생/학부모의 욕망 사이에 커다란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번역된 마이클 로스의 『대학의 배신』에는 대입 입학 예정자의 학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대학 입학 예정자 가운데 92%가 사회 진출 대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으며, 학교를 선택할 때 교양교육을 들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학생은 8%에 불과했다.”<sup>4)</sup> 한때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명문대에 입학하여 “직업과 관련 없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에 불과하다. 이것이 2007년 미국의 대학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내면’에 초점을 맞추면 신자유주의는 정치나 경제 패러다임인 동시에 ‘주체성’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기업가적 자아’(브뢰클링), ‘자기계발하는 주체’(서동진), 1인 기업 등으로 불린다. 서동진이 미셸 푸코를 인용하여 잘 설명했듯이 “자본주의는 주체에 ‘대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통해’ 지배한다.”<sup>5)</sup>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은 ‘주체성’ 자체의 생산을 통해 작동한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능동적 계기와 수동적 계기, 외부 조종과 자기 조종이 풀릴 수 없게 서로 엮인 역설적 과정이다.”<sup>6)</sup>라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개인의 욕망을 경제적 가치에 정향시킨다. 그리하여 이 통치의 메커니즘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자본화, 즉 ‘능력자본’의 형태로 투자함으로써 삶 자체를 1인 기업화한다. 푸코라면 이것을 ‘예속적 주체화’라고 불렀을 텐데, 신자유주의 하에서 개인이 자신을 ‘기업’으로 이해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의 상품가치를 증명하거나 증대시키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2) 같은 책, 118~119쪽.

3) 이에 대해서는 오찬호의 『진격의 대학교』(문학동네, 2015), 마이클 로스의 『대학의 배신』(지식프레임, 2016), 데렉 북의 『파우스트의 거래』(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등이 대표적이다.

4) 마이클 로스, 『대학의 배신』, 최다인 옮김, 지식프레임, 2016, 177쪽.

5)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368쪽.

6) 울리히 브뢰클링, 『기업가적 자아』, 김주호 옮김, 한울, 2014, 29쪽.

예속적 주체화로서의 ‘기업가적 자아’는 그것을 지탱-실행시키는 몇 개의 담론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한 자기계발 담론, 능력주의라는 신화, 경쟁지상주의, 그리고 서열화.위계화를 당연시하는 뉴 노멀(New Normal) 등이 그것이다.

## 2. 통치성 담론과 자기계발

미셸 푸코의 ‘통치성’ 개념, 그것과 ‘권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은 이 글의 직접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 정도는 밝혀두어야 할 듯하다. 푸코는 『안전, 영토, 인구』라는 제목으로 번역·출판된 1977~1978년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에서 18세기의 새로운 권력테크놀로지를 ‘안전-영토-인구’라는 틀에서 해명하려는 애초의 기획에서 벗어나 ‘안전-인구-통치’의 방향으로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통치’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의 계보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발견했다.<sup>7)</sup> 토마스 렘케가 「푸코, 통치성, 비판」에서 설명하듯이 “군사 행위나 법적 행위와 전혀 다른 것”인 ‘통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 즉 (1)이데올로기로 이해하는 관점, (2)정치-경제적 현실로 보는 관점, (3)실용적인 반(反)인간주의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기-규제, 곧 “자아의 테크놀로지”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다소 길지만 신자유주의적 통치에 대한 렘케의 중요한 진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 주체(또한 가족과 결사체 등과 같은 집단)가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전략은 질병, 실업, 가난 등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삶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부터]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전가하고 그 같은 책임을 “자아-관리”의 문제로 변형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한 가지 중요 특성은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개인과 경제-합리적인 개인을 결합한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책임감 있는 주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도덕적 자질은 이들이 대안적 행동과 특정한 행동을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행동의 선택이란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기초한 자유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는 주체 홀로 가져온 것이고 따라서 주체 홀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전략은 모든 영역에서 전개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개인의 준비 문제[가령, 노후 준비]로 전환하게 된다.”<sup>8)</sup> 이러한 자아의 테크놀로지의 중심에 자기계발 담론이 위치하고 있다.

서동진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자기계발서’는 꾸준히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를 점해왔다.<sup>9)</sup> 2000년대에 접어들어 그것은 ‘힐링’과 ‘멘토’ 담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실패와 시련을 딛고 일어난 경험(성공담)과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위해 개인이 체득하고 감내해야 할 미덕(?)에 대해 조언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계발서 열풍이 시작된 시기와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본격화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세술이나 자기계발서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직장인들의 필독서로 여겨지던 자기계발서가 대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취준생’의 필독서로 영향력을 넓힌 것이다. 추측컨대 이 시기가 바로 ‘대학’이 스스로를 교육의 장소가 아닌 ‘직업교육’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때일 것이다. 알다시피 한국 출판시장에서 자기계발서가 베스

7)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 162~165 참고.

8) 「푸코, 통치성, 비판(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9)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263쪽.



트셀러의 목록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IMF 외환위기 전후이다. 처음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성공하는 사람을 위한 7가지 습관』 『아침형 인간』처럼 미국 시장을 통해 흘러든 직장인을 위한 실용적 처세술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자기계발서 열풍은 2008년 미국발(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힐링’이라는 코드로 바뀌었으니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sup>10)</sup>의 기록적인 판매량은 ‘자기계발-위로-힐링’ 담론이 사회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계발서의 유행은 그것을 직접 접하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생들 상당수는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삶 자체를 ‘자기계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위계화된 대학서열에서 상위권자기계발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자기계발’에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이 가리키듯이 지금 대학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등’보다는 ‘차등/차별’이 정당하다는 쪽에 동의하며, 그 기준은 학력, 학벌, 수능점수 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등/차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자기계발이다. 요컨대 그들은 명문대,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온갖 현실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며, 반면 중하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현실적인 보상이 차등 지급되는 것은 ‘공정’이나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기계발과 촘촘한 서열화의 논리에 따라 대학의 서열이, 안정적인 직장의 순서가, 그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아니 미취업자에 이르는 사회적 위계(hierarchy)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때문에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동정하면서도 그들이 정규직으로 신분전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유는 비정규직은 자기계발에 게을렀거나 그것에 실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소위 ‘스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구조적인 사회적 조건’이 아닌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이해한다.

(1) 있어 수능 점수는 475점 어치의 ‘상품권’ 같았다. 상품권은 그 범위 안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거스름돈은 주지 않는다. 우리가 10만 원 권 상품권을 가지고 쇼핑을 할 때, 어떻게든 10만 원을 다 쓰려고 노력하듯, 나 역시 나의 475점을 어떻게든 남김없이 다 쓰려고 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수능점수가 재수까지 해서 힘들게 획득한 상품권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서강대 경제학과와 연세대 인문학과에 사용했다. 손해 보기 싫은 그 심리, 남들이 7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살 물건과 내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살 물건이 같으면 손해라는 그 심리가 나를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물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실, 나는 400점짜리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대학의 ‘영화학과’를 무척이나 가고 싶었다.<sup>11)</sup>

10) 2016년 4월 인터넷서점 YES24는 2006년부터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의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 조사에서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 책들의 누적판매량은 300만권을 넘었다. 특히 김난도의 책은 1년(2010~2011) 동안 512쇄, 130만권 판매 기록을 남겼다.

11)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2013, 143쪽.

(2) 자질 모델은 개인을 타인을 이용하여 능력을 키우는 자유로운 경영자로 본다. 신자유주의의 득세는 일상의 언어를 바꾸어놓은 것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어법들도 양산했다. “지식은 인적자원이다.” “경쟁력은 자본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자본을 획득하고 늘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학습은 장기 투자다.” …… 오늘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기관리’와 ‘기업가 정신’이다. 젊은이는 자신을 미니 기업으로 보아야 하며, 경제적 의미 차원에서 지식과 능력이 처음이자 마지막 심급이다. 이로써 자신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행된 일간지 <데 스타다르트>의 주말판 1면 타이틀은 이렇했다. “당신을 잘나가는 브랜드로 판매하라.” (…중략…)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입에서 매사 “그래서 무슨 득이 돼요?”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나요?”라는 질문부터 튀어나온다고 해서 놀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전달한 메시지를 정말로 잘 이해한 아이들이니 말이다. 젊은이들이 연대감이라고 모르는 경쟁적인 개인주의자로 자란다면 이는 경쟁과 개인주의를 장려하는 교육의 결과물이다.<sup>12)</sup>

먼저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자. (1)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에서 저자인 오찬호가 학생에게서 받은 과제물의 일부이고, (2)는 파울 페르하에허가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에서 교육이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잠식됨으로써 교육의 목표와 가치가 변질된 현실을 비판하는 장면이다. 전자에서 수험생은 자신의 진로 선택을 상품권으로 ‘쇼핑’하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으며, 후자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자기관리’와 ‘기업가 정신’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의 이상적 모델은 현명한 투자자일 것이고, 후자의 이상적 모델은 자기관리에 성공한 기업인 또는 ‘셀럽(Celebrity)’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입장 차이를 참조할 수 있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 특히 교양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은 직업 선택과 무관하다는 주장부터 대학교육 자체가 직업교육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루미나 재단은 “대학은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낡은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직업을 위한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직업훈련은 대학의 목적 가운데 하나임을 부정하기란 사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sup>13)</sup>라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의 전공이 무엇이든 학위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폭넓은 통합 지식, 전문 지식, 지적 기량, 응용력, 시민 정신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툴 재단(Thiel Foundation)은 학생과 학부모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소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학교육의 무용함을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이 그랬듯 대학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운다. 하지만 대학이 4년짜리 파티일 뿐인 지금 상황에서 등록금은 사실 소비일 뿐이다. 거대한 수영장이 딸린 집을 사는 것이 사실 투자가 아니라 소비일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것이다.”<sup>14)</sup>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현명한 쇼핑객-사실 이 학생은 자신의 진학을 ‘쇼핑’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을 자처하는 (1)의 수험생 역시 ‘소비’를 ‘투자’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툴 재단이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신자유주의에서 젊은이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혁신적 과학·기술 프

12) 파울 페르하에허,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장혜경 옮김, 반비, 2015, 177~178쪽.

13) 마이클 로스, 『대학의 배신』, 최다인 옮김, 지식프레이밍, 2016, 170쪽.

14) 같은 책, 173쪽.

로젝트를 수행하고 기업가 정신을 배우며 미래 지향적 회사를 세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대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의 지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상은 고도의 집중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일으키고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영웅적 기업가로 바뀌었다. 공교롭게도 혁신을 상징하는 미국 기업인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둘 다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었다.”<sup>15)</sup>,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부터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 텀블러 창시자 데이비드 카프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을 구현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부 교육 이탈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sup>16)</sup>

-주식회사. 이는 자기 자신을 주식회사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새 천년으로의 전환기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회 변동을 일컫는다. 인간은 점차 외부 책임 대신 자기 책임을 선택하는 삶의 기업가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은 경제적으로 강요된, 광범위한 안전망으로부터의 국가의 후퇴와 함께 일어난다. 나아가 더 많은 자립성과 기업가정신을 요구하는 노동문화의 전환은 자기를 더욱 나-주식회사로 이해하게 만든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실제 주식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시세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내가 가진 나-주식의 값을 무조건 다시 올려야 해.”<sup>17)</sup>

신자유주의에서 ‘자기계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개인을 ‘1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이 담론에서는 진학, 결혼, 출산, 심지어 미용이나 다이어트조차도 모두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비만한 사람은 자기계발에 게을러 자신의 ‘주가(株價)’를 떨어뜨린 부적격 경영자로 간주되며, 하위권 대학의 대학생, 취업에 실패했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자기계발 담론이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게시판에서 끊임없이 대학 서열 논쟁이 재발하고, 이른바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등의 학력위계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작용하는 이유도 그것이 곧 ‘나-주식회사’의 시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에서 개인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자’로 등극한다. 그러나 이러한 승급에는 한 가지 옵션이 따르는데 그것은 모든 개인의 불행은 결국 자신, 즉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기 책임을 정치어젠다의 최상위에 놓고 이 계명과 함께 복지국가 보장체제의 해체를 둘러싸던 대처리즘과 레이저노믹스 논리 속에는 누구나 자기 삶의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sup>18)</sup>

15) 같은 책, 178쪽.

16) 지그문트 바우만·리카르도 마체오, 『지그문트 바우만, 소비사회와 교육을 말한다』, 나현영 옮김, 현암사, 2016, 70쪽.

17) 올리히 브뢰클링, 『기업가적 자아』, 김주호 옮김, 한울, 2014, 60쪽에서 재인용.

18) 올리히 브뢰클링, 『기업가적 자아』, 김주호 옮김, 한울, 2014, 68쪽.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계발에는 끝이 있을까? 불행하게도 없다. 건강, 몸매, 자산, 평판 관리가 그렇듯이.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업가는 언제나 도래할 뿐이다 - 그것은 늘 되어감의 양식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존재함의 양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sup>19)</sup> 이 항상적인 자기계발의 긴장이 ‘우울증’, 이른바 프로작 경제의 소산인 우울과 불안의 핵심이다.

19) 올리히 브뢰클링, 『기업가적 자아』, 김주호 옮김, 한울, 2014, 10쪽.

## 자기계발 강박증 때문에 받는 영향



[출처: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인, 2013년 7월 2일]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이 가리키듯이 지금 대학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등’보다는 ‘차등/차별’이 정당하다는 쪽에 동의하며, 그 기준은 학력, 학벌, 수능점수 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등/차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자기계발이다. 요컨대 그들은 명문대,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온갖 현실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중하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현실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옳바르며, 반대로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비정규직의 신분 전환 같은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것은 비정규직이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소위 ‘스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성 세대들은 ‘스펙’을 대학졸업자 또는 구직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들 또는 취업준비생에게 그것은 ‘취업’이라는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학교생활의 일상과 시간을 얼마나 엄격하고 충실하게 관리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들에게는 수강신청이나 수업을 듣는 일조차 ‘자기계발’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기 때문에<sup>20)</sup> 투입량과 산출량을 따져서 수강신청을 하며, 자신이 노력을 투입한 양에 비례하는 학점이 돌아오지 않을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이십대 대학생들이 입학해서부터 자기계발을 강요받고 그런 쪽으로 시간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특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체화한다.”<sup>21)</sup>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상품이다. 이들은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 또는 돈을 지불하고 제공받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sup>22)</sup>

20) “예전이라면 ‘여가’에 해당했을 활동조차도 ‘취직’이라는 목적에 합치하게 구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할 때조차도 동생은 이력서에 써넣을 수 있는 경력 한 줄을 생각한다.” 한윤형,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어크로스, 2013, 234쪽.

21)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2013, 37쪽.

22) 마이클 로스, 『대학의 배신』, 최다인 옮김, 지식프레이밍, 2016, 164쪽.

### 3. 능력주의라는 허상, 경쟁주의라는 현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은 '1인 기업'이며, 우리들 각자는 자기 기업의 경영자이고,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곧 개인에게, 개인의 자기개발 여부에 달려있다는 헛된 믿음을 유포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는 '이익'을 위한 일시적인 결합은 존재할지언정 연대, 결속, 공동체 등의 자리가 없다. 특히 이 패러다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 즉 무한경쟁주의가 원칙이며, 양질의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타인은 잠재적인 경쟁자일 뿐 나와 공존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 후카사쿠 긴지 감독의 영화 <배틀로얄>이나 1999년 네덜란드에서 방영된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빅브라더>,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바이버> 같은 '살아남기(생존)'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안으로서의 '연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흩어지는 까닭은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개인화된 개인들에게서 '연대'의 감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연대'의 감각이 취약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조차 약해진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기업의 성격 또한 약탈적이어서 상대 기업과의 경쟁보다는 '합병' 방식으로 잠식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한경쟁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능력주의'를 강조한다.

왜 '능력주의'일까? 사실 '능력주의'라는 말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능력주의'는 종종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자본주의 초기의 '신인류'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주장처럼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물론 '능력주의'는 최선일 때조차 사회진화론이나 적자생존의 논리를 넘어서기 어렵지만 말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 능력주의가 문제되는 이유는 능력 중심의 평가와 배분 때문이 아니라 이때의 '능력'이 개인이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능력적 특혜"의 방식으로 세습되기 때문이며, 근대적인 '능력주의'라는 환상을 위협하는 '세습자본주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능력주의 신화는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부유층과 특권층은 칭송하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부당하게 비난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sup>23)</sup>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 가운데 (개인이 노력하여 얻은) 능력에 비례하여 개인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는 능력주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세상은 '세대 간 릴레이 경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능력주의는 오직 극빈층에게만, 부모 세대로부터 아무 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 개인의 도착점을 출발점이 결정하는, 개인의 운명이 그 자신의 '능력'보다는 '상속'에 의해 결정되는, '능력'을 획득하는 데에도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필요한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은 부모의 능력을 포함한 비(非)능력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저론'이나 '세습자본주의' 담론은 모두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이처럼 비(非)능력적 요소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정치세력과 언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능력주의의 신화적인 사례를 칭송함으로써 '능력주의'를 신자유주의적 세습자본주의의 맨얼굴을 가리는 커튼으로 사용한다.<sup>24)</sup>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이 말

23) 스티븐 J. 맥나미·로버트 K. 밀러 주니어, 『능력주의는 허구다』, 김현정 옮김, 사이, 2015, 14쪽.

24)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신흥부자들이 근면과 노력으로 부를 이뤄낸 자수성가형 기업가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 모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만 있다면 이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폴 알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델사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 등 많은 자수성가형 기업인들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중상층 출신이고, 이들의 중상층 배경이 없었다면 빌 게이츠나 마크 저

하는 '능력'이란 결국 '교육능력주의'와 '경제능력주의'의 결합물인데, 많은 연구 결과와 우리의 경험적 사실이 증명하듯이 그 능력들은 이미 개인이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오늘날 이러한 '능력주의의 신화'는 무한경쟁주의를 작동시키는 포장지처럼 기능하는데, 제법 많은 학생들이 '능력'의 산화에 이끌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 정부가 권장하는 '청춘'의 미래이기도 하다.

(도표 6) 서울지역 주요 대학별 전체학생 대비 학자금 대출자 비율(2010년 1학기)

단위: %

대학(어대제외)	대출비율	비고	대학(어대만)	대출비율	비고
서울대	5.5	평균 7.9	이화여대	10.0	평균 11.4
연세대	5.3		숙명여대	12.7	
고려대	10.5		성신여대	17.0	평균 17.4
서강대	10.4		서울여대	16.7	
성균관대	11.0	동덕여대	19.3		
한양대	11.4	평균 12.0	덕성여대	16.5	평균 15.4
중앙대	13.5		평균	15.4	
경희대	11.3	평균 15.6	(출처: 대학알리미 -- 통합보고 -- 대학재정 -- 학자금대출)		
한국외국어대	13.0				
동국대	15.1				
건국대	8.6				
홍익대	14.0				
국민대	19.1				
송실대	16.1				
세종대	18.2				
단국대	18.2				
광운대	15.4				
명지대	19.5	평균 18.9			
상명대	18.2				
가톨릭대	18.4				
한성대	19.6				
서경대	19.4				
삼육대	21.5	평균 14.5			
평균	14.5				

과거에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담당했으나 오늘날 그것은 '경제능력주의'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열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 서열의 무서움을 절감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한다. 그것은 영화 <배틀로얄>의 상황과 흡사하다. 성장환경과 교육제도가 이러한 경쟁을 독려하고 부추기기 때문에 학생들은 초-중-고를 거치면서 경쟁 이외의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자란다. 김예슬 선언을 접

커버그가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경제적 기반 (혹은 자본)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윤초희,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교육비평』 37호, 278쪽.

한 대학생이 지적(“당신은 썩어버린 작은 사회에서도 배우지 못한다고 인간으로 살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더 썩은, 작은 사회를 이렇게 만든 큰 사회에서도 인간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어찌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sup>25)</sup>라고 있듯이 오늘날 학교는 ‘계급’(폴 윌리스)만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는 ‘경쟁시스템’ 자체를 유지·재생산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개인의 생존과 이익 이외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한데, 기성세대는 이들을 ‘괴물’로 만든 시스템보다 젊은 세대의 이기심을 지적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 이 경쟁의 내면화가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는 ‘팀플/조별 과제’ 수업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팀플’의 문제성은 광고의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경쟁’과 ‘협동’이 공존하기 어려운 데서 생긴다. 어떤 학생들은 ‘팀플’ 수업을 ‘발암물질’이라고 표현하거나, 심지어 ‘팀플을 해보면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조소한다. 오죽했으면 2013년 SNL에서 방송한 <조별 과제 잔혹사>에서 조원들을 살해하는 조장에 대해 대학생들이 ‘폭풍공감’을 표하기까지 했을까. ‘경쟁’에 익숙한, 또는 ‘경쟁’을 공정하고 편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한 지금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팀워크’를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의도와는 별개로, 비현실적이다.<sup>26)</sup> 이는 강의실에서 ‘조별발표’나 ‘조별과제’를 시켜보면 금방 확인된다. 학생들은 발표나 과제를 정확히 N등분하여 카카오톡이나 카페 등을 통해 공유한다. 각자의 미션을 수집하는 일도, 그것을 바탕으로 발표문을 작성하는 일도, 나아가 프리젠테이션하는 일도 개인의 미션에 해당하기에 그 전체를 아는 사람은 발표자 밖에 없다. 교수자의 기대와 반대로 ‘팀플’에는 팀플레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 대신에 서로에 대한 원망과 적대만이 남는다. “이든 저든 모든 것이 내 책임으로 정리되는 세상에서, 개인에겐 전투적 자기계발에 투신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sup>27)</sup>

선언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하게 들었던 생각은 사실 ‘어찌라고’였다 (…중략) 취업학 교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대학교라지만, 난 이곳에서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사랑하는 의 상을 공부하고 있고, 나날이 나의 지식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고 있기에 비판적이고 구조적인 시각만으로 대학 자체에 회의감을 갖는다는 것에 내가 계속 곱씹었던 말은 ‘어찌라고’ 누구는 힘들지 않아서 버티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주어지지 않는 패션 산업에서 그래도 나는 성공하기 위해 꽤나 승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 않은가.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보다 그 시간을 나를 더 단련하는 데 충실하게 쏟아 붓고 있는 나에 대한 무례가 아닌가.<sup>28)</sup>

지금의 학생들은 경쟁을 내면화하면서 성장했다. 우리가 대학 강의실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은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리자이자 생존자인 것이다. 그들 또한 경쟁의 어려움이나 피곤함을 모르지 않지만, 그들은 경쟁을 거부하는 영화 속의 주인공과 달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25) 같은 책, 69쪽.(‘진아’의 글)

26) 초중고 과정에도 ‘조별과제’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팀플레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엄마들이다. 학생들은 ‘엄마’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는 존재일 뿐이다. 조별과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흠흠 청춘』, 세창미디어, 2016, 123~153 참고.

27)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2013, 188쪽.

28)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닌란 말인가』, 푸른숲, 48~49쪽.(‘지혜’의 글)



경쟁하고 승패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결정이 객관적이라고 인식되는 ‘수치’에 의해 표시될 때 그것이 권위는 한층 높아진다. 그리고 누군가 대안 없이 이 ‘잣대’를 뒤흔들거나 문제 삼을 때, ‘어쩌라고’ 같은 반응을 보인다. 가령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수강신청도 중요한 경쟁인데, 흥미롭게도 학생들의 비판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빈자리의 부족을 향한다. 그러니까 스펙이 많아지면 많은 스펙을 쌓는 일에 매진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지면 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지금의 학생들이다. 일본의 유명 교양대학은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단체 활동(음악이나 체육 등)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 공대는 ‘자살예방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으며,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이 교육을 수강해야 논문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경쟁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걸까?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척도-권력’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 자체가 절대 도망갈 수 없고 그렇다고 직접 맞서 싸워봐야 결과가 뻔하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바로 그 깡패 같은 이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알아서 모시겠습니다”라고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것이다.”<sup>29)</sup> 문제는 이러한 척도-권력에 대한 복종과 그것의 내면화가 결국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복종이나 정당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가시적인 표현방식의 하나가 바로 “강자에게 굽실거리지만 자신보다 힘이 더 약한 이에게는 마치 강자처럼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이것은 대학의 서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대학생들이 벌이는 가장 뜨거운 논쟁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어떤 범주에 묶여야 하는가를 두고 싸우는 대학 서열 ‘배틀’이다. (…중략…) 위에서 이야기한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는 수능 성적 상위권 10개 대학의 서열로 (…중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 의미이다. 이 ‘/’는 대학집단 간의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질적 차이를 의미한다. (…중략…) 대학 서열이 인생에서 대부분의 차이와 차별을 결정하는 현재의 체제에서 자신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것이다.”<sup>30)</sup>

#### 4. 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대학은 ‘교육’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특정한 기능(주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의 관심은 ‘대졸’ 자격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 그들은 ‘공부’를 위해 대학에 가지 않으며, 사회나 대학 또한 그들에게 ‘공부’를 권장할 생각이 별로 없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학교 재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4%가 ‘대학 진학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sup>31)</sup> 해당 조사에서 대학 진학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취업 때문에’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략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얻을 것이라곤 ‘학벌’ 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이 부당하게 비싸다고 생각한다. ‘학벌’ 이외의 모든 스펙은 학교생활이나 강의와 무관하게 자신이 뛰어다니며 쌓아야 하니까 ‘대학’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 학생들은 취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과목은 불필요하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의 ‘위기’를 비판하기는

29) 강수돌, 『팔꿈치 사회』, 갈라파고스, 2013, 44쪽.

30) 같은 책, 41~42쪽.

31) <대학생 10명 중 6명 “대학 진학 후회”…이유는?>, 『동아일보』, 2016.03.08.

쉬워도 ‘대안’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마이클 로스는 『대학의 배신』에서 전 하버드 총장(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넬트)의 말을 인용하여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학생이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시대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자 하는 욕구는 그가 교육받은 인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육은 정신을 인습이라는 속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sup>32)</sup> 대학 교육의 핵심은 특정 분야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주장은 지금 대학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지시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래세대는 일생동안 3개 이상의 영역에서 5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고, 19개 이상의 상이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정 분야의 기능인이 미래세계에 적합한 인간 유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대학이 특정한 기능에 능통한 인간보다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늘 현실의 시스템에 의해 좌절된다. 이러한 좌절의 경험은 학생은 물론 교수자들 역시 똑같이 경험한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이유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그 시스템의 지배로 인해 지금 대학은 이상한 곳이 되어버렸다. 강좌 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권한과 요구를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강의평가제는 (비정규직)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바꿔버렸다. 도입 취지와 달리 그것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대학 강의는 교육서비스가 되었다. 또한 경쟁 시스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상대평가제에 묶여서 그것을 유지·재생산하는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가 경쟁이니 강의 ‘과정’ 자체에서 팀워크가 만들어질 리가 없다. 심지어 대부분 대학의 강의평가는 ‘강의’를 평가하지 않고 노동자, 즉 강사에 대한 노무관리 또는 서비스 평가로 바뀌었다. 거기에는 해당 강좌가 개인의 비판적, 창의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등의 질문이 등장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관리하는 데는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려는 이율배반이야말로 한국 대학의 속물근성을 보여준다. 결국 대학 평가라는 압력이 대학을 ‘작은 사회’로 기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대학 스스로가 이 시스템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학=큰 배움’은 물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실패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실험’이 필요하다. 그 실험은 강의평가를 노무관리 수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전공이 불가능하다면 교양만이라도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 나아가 ‘필답고사’라는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등에서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시스템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이는 평가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강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일련의 실험들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 사회가 지금까지 ‘시스템’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소설가 김사과의 『미나』에 등장하는 한 장면은 지금의 교육이 어떤 종류의 인간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32) 마이클 로스, 『대학의 배신』, 최다인 옮김, 지식프레임, 2016, 145쪽.

별다른 경험 자체가 없으므로 그녀가 만들어내는 아카데미용 관념들이 그녀가 가진 전부, 그녀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녀는 루소에 대해서 시제와 전치사와 대명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정확한 발음과 억양의 영어로 자신이 가진 생각을 펼쳐놓을 줄 알았으며 그녀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하다. 자 이제 키보드를 열고 루소, 시제, 관계대명사를 차례로 입력하라, 단 포멸한 영어로. 그렇게 하여 나오는 결과가 수정의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루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유하였는가 루소를 좋아하는가 따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루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단 올바른 대명사를 사용하여), 루소의 고백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단 올바른 시제를 사용하여), 올바른 악센트와 연음구조를 습득했는가이다. 그런 식으로 적절한 문법을 사용하여 미국 동부지역의 발음과 억양으로, 루소에 대해 지껄이면 그녀는 루소에 대해 안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단지 어떠한 평가기준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다. 평가자가 그렇게 본다면 성공이다.<sup>33)</sup>

---

33) 김사과, 『미나』, 창비, 2008, 76~77쪽.

토론 1

**이효선**  
(경희대)



## ‘여성혐오’는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 : 젠더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sup>34)</sup>

엄혜진  
(경희대학교)

### 1. 신자유주의적 젠더 관계와 청년 세대

이 글을 제안 받은 취지는 지난 5월 강남역 여대생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성혐오’ 논란을 사회 갈등으로 해석해서, 바람직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모델을 탐구해 보는 것이다. 강남역 사건은 ‘여성혐오’ 담론(장)의 내용과 형식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안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웃의 수고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은 젠더 의제 자체로부터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젠더 의제로 수렴되면서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젠더 의제가 사회적 논란이나 토론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젠더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가 형성되는데 관여하는 권력, 제도, 사유의 방식, 행위 양태 등을 탐구하는 사회 분석 범주로 정의할 때, 젠더 의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들과 얽혀 있는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공론장과 온라인 담론장에 젠더가 의제로 등장하는 방식은 이른바 반동(backlash, 역풍, 반격)의 형태와 과정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평등은 이미 충분히, 혹은 ‘과잉’ 달성되었다는 믿음을 전거로 하여, 페미니즘과 여성에 대한 특정한 신화들(myths)을 생산하면서, 다양한 층위에서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Faludi, 1991). 페미니즘이 남성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거나(‘꼴페미’), 독립적인 싱글 여성은 이기적 속물이라거나(‘된장녀’), 한국 여성은 자신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파렴치하게 남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김치녀’) 식의 신화들이 통념화되고,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각종 성평등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도 동반되었다. 반동이 역사적 진보(advances) 이후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도와 수위가 전면적이고 광범한 것이다.

이러한 반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이후 급진적 신자유주의화와 맞물린 젠더 관계의 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력과 노동자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정규직 남성을 표준으로 두었던 노동자상을 유연화하면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성별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듯 보였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고학력화를 배경으로 크게 분출되었던 여성들의 독립적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와

34) 이 글은 연구노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실현되는 듯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2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 동기만큼이나 책임 압박은 커졌지만, ‘일’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돌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이 변화하고 변화해야 하는 만큼 남성, 직장,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자연된 혁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Hochschild, 1989).

이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규범이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까지 전면화되는 과정과 관련된다. 삶의 모든 영역을 자산가치화 하라는 정언명령 속에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는 주체상이 사회 저변에 뿌리내렸다(서동진, 2009; 박소진, 2009). 이에 따라 성차와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관념은 사라지기보다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성차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자 속성의 하나로 사고되며, 성역할조차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엄혜진, 2015). 여성의 저임금을 만들어내는 성차별적 구조를 그대로 승인한 노동의 유연화는 여성에게 ‘기회’로 의미화되는 한편, 가사노동이나 양육과 같이 기존의 성역할을 사회와 남성의 도움 없이 수행하는 것은 여성 자신의 ‘선택’이자 그에 따른 ‘책임’으로 이해된다. 근대적 성별분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비가시화하는 새로운 젠더 규범이 형성된 것이다(엄혜진, 2015). 이 새로운 젠더 규범의 등장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일차적으로 남성성의 위기, 즉 가부장적 부권주의의 위기로<sup>35)</sup> 반응했다. 자연된 혁명의 효과가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가운데, 여성들의 특정한 ‘생존전략’(결혼 및 출산 지연 등)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일과 병행됐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젠더 관계의 지형에서 자유로운 주체는 아무도 없지만, 청년 세대는 좀더 각별하다. 이들이 태어나 성장한 한국 사회는 이기적이고 원자적인 개인을 이상화하면서, 공존의 가치와 상상력이 이미 체계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한 사회였다. 1990년대 이후 진작된 성평등 인식과 문화가 일정하게 자리 잡았지만, 성적 차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와 시장 질서에 따라 순치되었다. 당장의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불평등이 아니라면, 알아서 감수하는 것이 개인의 역량이라고 판단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성적 차이와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금기시 되었다. 시장 질서는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성적 차이와 그 의미를 수용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이다(엄혜진, 2012; 2016)<sup>36)</sup>. 게임의 규칙이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짜여져 있으며, 게임이 벌어지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다는 주장은 무시됐다. 게임의 규칙과 울퉁불퉁한 운동장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사회의 기능이 정체 혹은 낙후되는 동안,

35)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단행된 구조조정은 여성 ‘우선’, 혹은 여성 ‘표적’ 정리해고 등과 같은 젠더 편향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가족에 불어닥친 위기를 경제적 방식을 포함하여 여성들이 부담했다는 점은 비가시화되고, ‘고개 숙인 아버지’로 대변되는 남성의 지위와 위상의 위축을 우려하고 위로하는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

36) 이은의의『삼성을 살다: 12년 9개월』(2011, 사회평론)은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는 사측, 삼성과의 투쟁 기록을 담고 있다. 성추행 피해를 고지하자마자 저자는 곧바로 왕따가 되었다. 무려 5년간 사내 왕따로 버티며 별인 법정공방에서 마침내 승리한다.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생리휴가에 관한 이야기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고졸 여직원들은 모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데, 대졸 여성으로서 저자가 처음으로 생리휴가를 냈단다. ‘네가 왜?’라는 반응이 돌아왔고, 저자는 대졸자도 생리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확인해주어야 했다. 여성들이 시장에서 성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경쟁 질서에 대한 위반이며, 최소한 ‘프로의식’이 결여된 것이거나, 극단적으로는 ‘왕따’를 감수해야 할 사안이 된다. 남성들은 이를, 남성들에게는 벗어나라 요구하면서 스스로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존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으로 간주한다. 생리휴가에 맞서 몽정휴가를 요구하는 참극은 이렇게 빚어진다(엄혜진, 2012)

여성들이 '공정 경쟁'의 규칙을 훼손한다고 바라보고, 공격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됐다. "사회란 것은 없다. 개인적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족만이 있을 뿐이다."<sup>37)</sup> 사회적 삶의 책임과 위험을 사적 영역으로 이전시켜 남성과 여성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춰지게 할 것이라는 예언적 교리가 아닐 수 없다.

청년 세대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젠더 관계를 복잡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조건은 대학과 온라인 환경이다. 지금의 대학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가장 상징적으로, 실천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이다. 대학 간, 교수-연구자 간, 학생 간 경쟁과 서열 구조를 체계화하여, 신자유주의적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된, 즉 연대의 불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다(천정환, 2010). 스펙에 대한 열정이 아카데미즘을 대체했다. 조직적 집합운동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성은 쇠락하였으되, 복권의 과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 고립주의의 보다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는 학생 사회가 평등과 차이를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의 연애(사랑, 친밀성) 담론의 폭발과 몰입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느 시대에나 청년들은 연애 담론과 실천을 통해 젠더 관계를 실제적으로, 그리고 상상적으로 경험하고 실험하지만, 동시대 청년들은 연애가 자율성과 평등을 배우고 실천하는 압도적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낭만적 사랑의 해체가 젠더 관계의 정치경제적 재구성과 결합되면서, 친밀성은 개인의 사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삶을 이해하는 핵심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연애 의례의 정교화와 전형화('썸' 등), 연애 각본의 소비주의적 실천의 확산, 연애를 둘러싼 온라인 담론(장)들의 활황은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젠더 관계에 대한 해석적 자원이 부여되지 않고, 사랑조차 '자기계발'의 일종이<sup>38)</sup> 되면서 성찰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는 젠더 관계의 구조적 모순을 개인화하고 성대결의 양상으로 이끄는 발화점이자 갈등의 도달점이 되기가 쉽다. 가령 남초 사이트에서는 데이트 비용 더 치페이가, 여초 사이트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연애를 둘러싼 주요한 이슈로 형성된다.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통해 성적 차이와 성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친밀성을 통해 민주주의, 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어떻게 배우고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방향과 방식은 전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또 다른 존재 조건은 온라인 환경이다.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1세대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체성 간의 유연한 조합을 다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이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재생산하고, 편재의 방식을 결정하는 지는 여전히 블랙홀이지만 몇 가지 단서들은 있다. 익명의 평등주의에 기반해 개별적 경험 담론을 폭발시킴으로서 해방감을 주지만, 또한 기본권마저 쉽게 위축시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집단지성의 위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단편적, 극단적, 탈맥락적 정보와 지식이 유통되는 데에도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문화적 재현물을 통해 '급진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담론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키면서, 모든 사회 갈등을 이해관계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한편, 형식적 윤리주의에 대한 강박을 높이는데 관여한다. 젠더 의제에 대한 폭발적이면서도 위태로운 담론장이 이러한 온라인 환경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7) 영국 대처 수상이 1987년 한 여성 잡지와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이다.

38) 연애 관련 각종 자기계발서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와 같이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승인하여, 이를 서로 이해해야 할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지난 학기 청운관 대자보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총여학생회의 존치 논란은 이와 같은 모든 배경을 참작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조건 **총여의 존치를 다루는 것 보다 방향성을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제 대자보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성혐오에 대해 모르면 배워야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다면 총여는 존재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견은 **사회에 만연한 것이 여성혐오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학내에서 어떤 여성 혐오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우들이 학내에서 받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들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제가 듣는 교양 강의시간에 **‘여학생 전용 열람실’이 역차별**이라며 말을 꺼낸 학생에게 교수님께서 남학생 전용 열람실이 만들어지면 사용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다른 남학생은 **‘남자만 있으면 척척하잖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여자는 척척한 곳을 밝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가벼운 말들이 혐오 발언임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바른 학생의 자세이며, 시민교육을 받은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된 무역학과 13학번 학우의 대자보 사진 아래에는 **‘여자치고는 마인드가 좋다.’** ‘얼굴이 예뻐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글 아래에 지독히도 성차별적인 발언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말로 모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김유빈, 경희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SOON, 강조는 인용자)

이 인용문은 이 글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쟁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총여학생회 기구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학생들은, 남성의 투표권을 배제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 ‘만’을 위해 존재하는 여학생 자치기구에 남녀 공동으로 모집된 학생회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무엇보다 총여학생회의 설치와 기능의 명분인 성차별과 성불평등이 대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치기구에 대한 논란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며, 여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우리 대학에서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다. 생리공결제, 여학생휴게실(열람실) 등과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안된 제도들과 프로그램들이 모두 역차별 제도로 ‘공격’받는 일들이 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여성혐오’ 논란의 자장과 관련성 속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성혐오’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 2. 여성혐오에 어떻게 주목해야 하는가? : 여성혐오와 ‘여성혐오’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여성혐오(mysogyny)는 단순히 폭력, 차별, 불평등의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주체를 남성(성)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젠더 체계의 무의식적, 의식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브 세즈윅(Sedgwick, 1985)과 우에노 치즈코(2012)는 근대의 형성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근대는 강제적 이성애(즉 호모포비아)에 기반한 남성의 동성사회적(homosocial) 욕망을 기축으로 형성되었는데, 여성(성)을 남성들 간의 유대와 관계의 도구로 배치하고 배열하는 내용과 형식, 이것이 바로 여성혐오라는 것이

다. 근대적 시민권은 인간 본질의 공통성에 기초한 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식론으로 추상적 개인이라는 관념에 의존해 있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타자화를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역설을 가지고 있었다(Scott, 1996). 바로 이 과정, 즉 남성들이 ‘남성됨’이라는 성적 주체화를 이루기 위해 ‘여성’이라는 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 여성혐오다(치즈코). 여성(성)에 대한 타자화와 객체화를 통한 멸시(증오/페티시즘으로서의 ‘숭배’)와 분할(성녀/창녀)로 구성되며, ‘개인’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조차도 내재화하게 되는 기저다.

근대 가부장제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인 여성혐오를 2000년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발생한 ‘여성혐오’와 잠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한다. 여성혐오를 분석적으로 역사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혐오’의 형성과 구성 과정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성혐오’를 2000년대 이후 남성 자신들을 피해자로 두고 여성을 ‘역차별’의 가해자로 호명하여, 여성들에게 실제적 위협과 공포를 행사하는 공세로 파악한다(엄혜진, 2016).

‘여성혐오’가 가시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다.<sup>39)</sup> 군가산제 폐지를 둘러싼 담론장은 ‘여성혐오’의 촉발지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성혐오’의 핵심적인 발화(‘군대도 안 갔다 온 년들’)를 생산한 계기였으며, ‘여성혐오’가 작동하는 기제의 원형을 담고 있다. 군가산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1998년 정부가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군필자 가산점을 일반기업체와 국가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다. 1997년 대선 시기 병역 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병역심사의 엄정 관리나 군대 대 처우 개선과 같은 군의 민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대신 택한 미봉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편의를 위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예측된 차별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배은경, 2000).

안보 이데올로기에 의해 신성불가침이 된 징병제, 고유한 군조직의 특성으로 방어되어온 폭력적 군문화, 기득권층과 군수뇌 권력에 의해 견고하게 지탱되어온 각종 병역 비리 등, 굵을 대로 굵은 한국 군대의 심각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풀리거나 풀어야 할 문제도 아니며, 무엇보다 여성들이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집합적으로 요구 대신,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여성단체와 여성 일반에 대한 마녀사냥이 사이버테러 이르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군대가 남성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군조직과 군문화 경험에 치를 떨면서도, 남성성에 대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사회적 보상을 누려왔던 것이다. 경제 위기 이후 가속화된 계층 격차의 심화와 맞물려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던 남성들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군대에서 추구한 애기’를 들어주는 ‘위무’를 여성의 역할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군대를 둘러싸고 위태롭게 구성된 남성성은 그것에 공모해주지 않는 (시건방진) 여자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 한순간에 패닉 상태로 몰고 가는 파괴력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배은경, 2000). 1) 경제적 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부당해진 처우에 분노하면서, 2) 위기의 파괴적 결과를 남성 독점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3)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지닌 제도들을 남성의 기득권을 앗아가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대시함으로써, 4) 여성에 대한 증오와 공격으로 확장하는 태도는 이후 ‘여성혐오’ 담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다.

39)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만점의 5% 범위)을 부여하는 제도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같은 ‘미필’ 시민들의 취업권에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근거로 위헌 판결했다.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난 것은 일베다. 일베에게 ‘여자’는 곧 ‘진보’인데, ‘잃어버린 10년’간 자신들에게서 무언가 약탈해간 것이 여성이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것이 바로 ‘홍어’와 ‘좌팔’이라는 것이다(윤보라, 2013). ‘보슬아치’(보지 가진 것이 벼슬)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여성(성)을 멸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김치녀’와 ‘개념녀’의 대당을 통해 ‘창녀’와 ‘순결한 여성’의 분할을 갱신하면서, 여성혐오의 작동기제를 재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확인되지도 않는 각종 경험담과 짤들이 이를 보증하는 증거로 원활하게 복제됐다. 일베가 탄생한지 5년 만에 ‘여성혐오’는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온라인 문화가 된 것이다.

이제 강남역 사건으로 가보자. ‘밤길을 되찾자’는 동서를 막론하고 여전히, 강력하게 제창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요구다. 조현병 환자의 우발적 사고로 한정해서 ‘안도할’ 것이 아니라, 즉한 여성의 참혹한 죽음이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전형적인 여성혐오(mysogyny) 범죄로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경험하는 일상적 현실의 구조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여성들은 불평등이 사라졌다고 말해지는 이 시대에, 차별과 폭력이 더 교묘해진 것만이 아니라, 더 노골적이 되었다고 정확하게 통찰했다. 묻지마 살인이 특정 성별을 향하는 그 경향성에 녹아 있는 무의식적, 의식적 구조로서의 여성혐오를 이해하고, 모든 여성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을 책임 있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집단적 성찰을 요구한 것이다(엄혜진, 2016).

강남역 10번 출구에 ‘여혐 남혐 하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요’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시위의 성격을 ‘애도’로 한정하라고 요구한 사람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진단과 관점을 본인들에게 불리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남성혐오’라는 것이다. ‘남성혐오’는 소위 ‘미러링’이라 일컬어지는 패러디를 통한 풍자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메갈리아의<sup>40)</sup> 온라인 행동주의 방법을 일컫는다. ‘김치녀는 삼일한 해야 한다’는 남성들에게 ‘한남충은 숨쉴한 해야 한다’로 되돌려주며, ‘여성혐오’의 공격성을 경험해보라는 ‘미러링’, 이것이 ‘남성혐오’일까?

메갈리아가 등장하기 전 지난 15년간 온라인에서 벌어진 ‘여성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방식은 다층적이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한 여성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기도 했고, 리벤지 포르노의<sup>41)</sup> 온상이었던 소라넷 폐지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엄격한 과정을 거쳐 가입 승인을 받는 여성들만의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은 의미있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미러링’은 수많은 피해와 피해 호소에 대한 실패로부터 나온 결과다. 무엇보다 ‘남성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넌센스다. 여성혐오는 남성에게는 ‘여성 멸시’로, 여성에게는 ‘자기혐오’로 구성된다(우에노 치즈코). 즉, 여성 멸시를 남성 멸시로 맞설 수 없는 근본적 비대칭성이야말로 여성혐오의 매커니즘이다. ‘여성혐오’는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실제적 불안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물리적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미러링’한 ‘남성혐오’는 그와 같은 실제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40) 메갈리아는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인 메르스갤러리에서 메르스 감염 경로 등을 둘러싼 유언비어들(홍릉에 쇼핑간 여성이 최초 감염자라는 등)에 나타난 ‘여성혐오’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졌다. 디시인사이드가 유례없이 금지어를 만들며 탄압을 시도하자, ‘메갈리안’ 사이트(megalian.com)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메갈리아’는 ‘메르스갤러리’와 <이갈리아의 딸들>을 합쳐 만든 조어이다. <이갈리아의 딸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바뀐 ‘이갈리아’라는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 사회의 남성중심성을 성찰하도록 만든 페미니즘 소설이다.

41) 헤어진 여성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유포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물.

물론 메갈리아의 온라인 행동주의가 그 폭발력만큼이나 자기 한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토론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메갈리아는 1, 2, 3, 4에서 워마드에 이르며 증식, 분열, 파생하면서 ‘미러링’의 정도와 방식에서 논란들이 발생했다. 사실 ‘미러링’이라 일컬어지는 패러디를 통한 풍자는 메갈리아에서 처음 비롯된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패러디를 통한 풍자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시간의 경계를 갖고, 분명한 대상을 구획 지을 때 그 폭발력이 있다. 익명의 평등주의에 기반한 온라인 플랫폼, 현실과 아이디 정체성의 간극과 균열, 정치적 공론장의 취약함 등과 복잡하게 연결된 온라인 행동주의는 자칫 애초의 정치적 목표를 통제하기 어려운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 촛철살인의 카타르시스는 둔화되고 메시지와 그 수신처는 축소, 왜곡되기 쉬운 것이다. 마치 맥락을 상실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어린이, 이주자와 같은 비주류 집단을 배제하는 논리와 실천들을 구조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부여해주는 대신, ‘영혼 없는’ 구호의 복제물들만 난무해진 상황과 유사한 것이다(엄혜진, 2016).

이와 같은 쟁점을 포함하여 우리 시대 메갈리안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산적인 토론 과제를 정식화할 때다. 메갈리아 이전에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메갈리안들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피해자들에게 부여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속절없이 당하고, 피 흘리고, 고통 속에 침묵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로 언명하기도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존과 인권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다기한 방식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위한 용어다. 이들은 기존의 저항 방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못 하는 여성들이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저항 규칙의 마지노선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정해져 왔는지를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발화의 형식논리만을 놓고 메갈리아를 일베와 등치시켜 ‘극단주의의’의 대결로 인식하는 것은 이 공론장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으로 편을 갈라 여성들에게만 유리한 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여성이 모든 남성을 적대시한다는 망상을 키우면서 ‘여성혐오’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과 정치다. 젠더 의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의 부재와 성평등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불안정성이<sup>42)</sup>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여성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두는 잔여적 정책으로 이 공백을 대체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여성우선주차석, 여성배려칸, 여성안심귀가 등의 프로그램들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린다는 ‘여성혐오’의 자원을 공급하는 데에만 귀결되고 있다. 성별 분업,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추상적 수치로만 떠돌면서 그 구체적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지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은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파렴치한 김치녀’가 되버린 것이다(엄혜진, 2016).

### 3. 젠더 교양교육의 과제와 방향

강남역 사건을 둘러싼 ‘여성혐오’의 지형과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은 젠더를

42) 가령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는 ‘시선 강간’이라는 말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자. ‘시선 강간’을 법적 용어로 옮기자면 ‘시각적 성희롱’이 된다. 강간, 추행, 성희롱으로 성폭력을 규율하는 현행 법제도에서 직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규율의 대상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조차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선의 폭력을 언어화한 것이 ‘시선 강간’인 것이다.

다루는 실력과 관계된다. 젠더는 개인과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젠더 의제, 젠더 관점, 젠더 방법론은 자기성찰성, 타자와의 소통과 공존, 차이와 평등에 기반한 정의로운 사회의 형성 등과 같은 시민성과 민주주의의 의제를 훈련하는데 필수적이며 용이하다.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 가장된 중립성에 대한 통찰, 공론장의 취약함 등 이 시대 민주주의가 처한 구체적 곤란은 많은 부분 젠더를 경유할 뿐만 아니라, 젠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분명하게 통찰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낯것의 경험 자체를 인식틀로 치환하거나, 젠더 이슈를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협상의 사안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여전히 만연한 것은 학문적 분석 대상이자, 자기(사회적) 성찰의 수단으로서의 젠더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대학의 과제는 1) 교양교과목의 젠더 관점 강화, 2) 젠더 관련 교양과목의 내실화, 3) 변화하는 학생들의 경험과 지적 욕구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의 지속적인 갱신, 4) 성평등 교육의 일상화와 제도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 대학은 ‘후마니타스’의 정신을 토대로 교양교육 강화를 주도한 대학으로서 많은 성과를 내왔다. 그러나 성인지 관점이 교양교육 전반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점검할 때다. 단순히 ‘여성 이슈’, ‘여성 학자’, ‘여성 연구’를 ‘끼워 넣기 아이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sup>43)</sup> 가령 <시민교육>은 시민의 형성 과정 역사성과 현재성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검토하는 교과목으로서 젠더를 이론 및 개념사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2번의 개정 과정을 통해 총 세 가지 버전의 교재가 나왔지만, 이론과 관련 텍스트 모두에서 이를 충실히,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고백해야겠다.

젠더 관련 교양교과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젠더 관련 교양교과목은 총 5개가<sup>44)</sup> 개설되어 있는데 양적으로도 빈약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역사, 문학, 미학 등의 전공 학제에서 다루는 2차 교양과목의 성격이 짙다. 젠더 기초 교양을 다루는 교과목이<sup>45)</sup>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는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서 민감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연애, 사랑, 친밀성을 민주주의와 평등의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는 과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sup>46)</sup> 성차를 젠더 관점에서 역사화하고 사회문화의 맥락 속에서 경험과 실천을 성찰함으로써 풍요로운 젠더 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자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규 교과과정 외 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등의 일상적인 ‘시민교육’ 강좌가 일상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효성을 점검하고 참여 동기와 교육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혐오’와 같이 시의성 있는 사안의 경우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토론될 수 있는 강좌와 강연이 훨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총여학생회나 학내 젠더 관련 소모임 등 학

43) 참고로 ‘고전읽기’에 선정된 55개의 고전 가운데 여성 저자는 단 두 명으로 박경리와 제인 오스틴이다. 여성 저자(고전)의 과소성 자체가(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학생들과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서울캠퍼스에 <젠더와 역사: 평등과 차이의 정치사>, <젠더, 섹슈얼리티, 문학>, <문학과 여성>, <페미니즘 미학과 예술>, <젠더, 가족, 일> 등 총 5개의 젠더 관련 교과목이 있다. 참고로 이화여대 16개, 성균관대 9개, 서울대 10개, 고려대 4개 등이다.

45) 타 대학에는 ‘여성학 개론’, ‘페미니즘의 이해’, ‘젠더의 이해’, ‘섹슈얼리티와 성평등’과 같은 과목명으로 존재한다.

46) 관련 교과목이라면 배분이수 ‘생명, 몸, 공생체계’ 영역에 <남녀의 심리>, <섹스란 무엇인가: 공생적 진화론의 성이야기>와, 자유이수 영역 <짜짓기의 진화심리학> 등이 있는데, 진화심리학이나 성차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자치기구와의 공동기획이나 지원정책을 통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학내 젠더 교양교육이 서로 긴밀하게 짜여질 때, 강남역 사건을 둘러싼 ‘여성혐오’( 및 그 대칭물로 인식되는 ‘남혐’) 논란에 대한 심도 깊고, 다층적인 토론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민권은 성장했지만,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진정한 시민은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 건드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시민교육 교재편집팀, 2016). 이 사회 속에서 ‘여성 혐오’, ‘성차별’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불평등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차별적 문화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타파하려는 개입이 필요하다. <중략> 프랑스의 스카프 사건에서 곳곳이 스카프를 매고 다녔던 학생들은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상황에 놓였다. 그들의 행동을 범죄로 간주해버리기 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게 하여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을 것이다(시민교육 교재편집팀, 2016).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온순한 주체’가 아닌 ‘공적인 주체’가 되어서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시각을 공론화하고 공적인 논의를 거쳐.....(하략) (시민교육 교재편집팀, 2016). (학생B)

학생 에세이 과제에서 발췌한 위 인용문은<sup>47)</sup> 시민권의 역사에서 불평등이 다뤄져온 방식과 한계를 통찰하면서 ‘여성혐오’ 이슈와 연결시키고 있다. <시민교육>이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현실문제 관심 증진 및 문제 해결’을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연구(채진원.박숙경.김성일(2015) 결과와 일치되는 것도 같다. 그러나 낙관적인 것만도 아니다.

시민 혁명 이후 시민은 다시 참정권을 되찾고 그 밖의 여러 시민의 권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여성은 시민혁명 이후에도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한 끝에 20세기가 되어서야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렇듯 역사상으로만 보더라도 여성은 계속해서 차별과 편견,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억압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별 경계심 없이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 여대생이 살해되고 그 이유가 여성에게 무시당해 그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학생A)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여성의 추모가 이어졌다. 새로운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추모가 일어나면서 가해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일반 남성에 대한 분노까지 일부가 표출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그로 인해서인지 언론도 이 사건을 여혐에만 맞춰서 보도하였고, 추모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은 대놓고 여자 쪽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남자 쪽에서만 중재를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물론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여성혐오 사상이 퍼져있기도 하다. ‘일간 베스트’와 같은 사이트는 그와 관련된 용어를 만들어내는 등 여성혐오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곳이다. 하지

47) 앞으로 인용될 학생글은 지난 학기 <시민교육> 에세이 과제에서 발췌한 것이다. 해당 에세이의 과제명은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바람직한 시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논하라(단, 제시된 텍스트를 인용할 것)’였다. 자유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110여명의 학생 가운데 강남역 사건을 소재로 하여 ‘여성혐오’를 다룬 학생이 약 30여 명에 이르렀다.

만 나는 이번 사건을 오로지 여성혐오로 단정지어버리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 이러니하게도 추모 공간에서 남자들의 여성혐오가 사회문제라고 모여 있으면서 저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행동이 오히려 여성들의 남성혐오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학생B)

특히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미러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적인 행위, 성희롱, 비난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받는 여성들을 구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근본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이성의 비난, 폭력은 그들과 같은 잘못된 방식의 페미니즘 등에 대한 안티테제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비폭력운동에 대하여 ‘눈에는 눈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모두가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보복은 영원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학생C)

고대 이론가는 남성과 여성이 나뉜 이유를 그 둘이 한 몸이었을 때, 신의 경지까지 넘볼 힘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이야기하였다.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남녀, 혹은 여남 모두 머리 모아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이 둘이 나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이에 대해 고민하여, 걸림돌이 아닌 건강한 사회로 한발 더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D)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강남역 사건을 사회적 불행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논쟁에 참여하고, 책임 있게 발언하기 위한 조건과 태도를 갖추는 데는 취약함을 드러냈다. 성차별과 그 해결과제에 대한 평면적 사고, ‘여혐’ 대 ‘남혐’이라는 담론 구도에 대한 즉자적 수용, 정치적 행동주의에 대한 소극적 승인, 젠더에 대한 순진한(naive) 몰인식 등이 그것이다. 공정한 판관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구경꾼 위치나, 온라인 환경에서 익숙해진 정치 소비주의를 벗어나도록 경계해서 자기성찰과 참여자의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이는 표면의 논란에서 벗어나 다층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길잡이(질문의 구성)를 통해 가능해진다. 다음과 같이 배경 지식 및 개념 정리, 논쟁 구도와 그 의미, 공론장 형성 및 참여, 대안과 실천 모색 등으로 토론 내용과 과정을 범주화하고, 각각의 범주 안에서 개념과 담론의 계보, 심급 구분을 통한 쟁점 의제의 정식화, 자기성찰 등이 복합적으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 1) 배경 지식과 개념 정리

- ‘여성혐오’는 다른 개념(가부장제, 성불평등, 성차별, 성폭력 등)과 어떤 관계인가?
- ‘여성혐오’는 언제, 어떻게, 어떤 주체에 의해 등장했는가?
- ‘여성혐오’는 어떤 젠더 관계를 반영하는가?
- ‘나’(관계/커뮤니티/대학)는 어디에 존재하면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

#### 2) 강남역 사건을 둘러싼 논쟁 구도와 그 의미

- 여성 살해(여성 폭력) 문제와 그 해법을 사회와 개인은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 강남역 사건은 ‘여성혐오’와 어떤 관계인가?
- ‘강남역 10번 출구’는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누구에 의해 왜 주도되었는가?

- ‘여성혐오’와 ‘남성혐오’를 대칭관계로 두는 것은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는가?
-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라는 틀로 강남역 사건을 둘러싼 ‘여혐/남혐’ 논란은 충분히 파악되는가?
- 강남역을 둘러싼 논란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역사적 쟁점이나 최근 사안은 무엇인가?
-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파악하는 요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 ‘나’의 입장은 어떤 경험, 지식, 담론장(온라인/오프라인)에 의해 참조된 것인가?

### 3) 공론장 형성 및 시민의 정치 참여의 방향과 과제

- ‘여성혐오’를 둘러싼 공론장은 어디이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시민의 정치적 요구들은 어떻게 달성되어 왔으며,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역사적 토론은 어떠한가?
-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방식(가령 온라인 행동주의)이 있다면 그 조건과 특징은 무엇인가?
- ‘나’가 참여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그것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 4) 대안과 실천의 모색

- 강남역 사건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성평등 의제는 무엇이며, 제도적, 정책적, 사회문화적 노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강남역 사건을 통해 폭력과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주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젠더 관계란 이를 위한 기반은 무엇인가?
- 성평등을 위한 ‘나’의 개입과 참여는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현장활동 의제)은 무엇인가?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배은경(2000),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여성과 사회』, 11: 92~114.
- 엄혜진(2015),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더 관계: 199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우에노 치즈코(2012),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 윤보라(2013),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 33~56.
- 채진원.박숙경.김성일(2015),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15(1): 29~2013.
- 천정환(2010),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평가제도와 글쓰기”, 『역사비평』, 92: 185~209.

- Faludi, Susan(1991),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New York : Anchor Books Doubleday.
- Hochschild. Arlie(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Penguin.
- Scott, Joan(1996), *Only Paradoxes to Offer: French Feminists and the Rights of Ma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Sedgwick, Eve(1985),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2. 기사

- 엄혜진(2012), “꼴페미에 의존하는 사회”, 레디앙(<http://www.redian.org/archive/7424>)
- 엄혜진(2016), “우리 시대 메갈리안들이 가리키는 것”, 레디앙(<http://www.redian.org/archive/101135>)

토론 2

**이기라**  
(경희대)



## 데이터과잉 시대, 디지털인문학과 기록의 정치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피엔스 족종은 유독 자본주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세계를 기술을 상수로 두고 현실을 정의하길 즐겨 한다. 기술이 바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산물이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번 압도당하는 격이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공할 기술들의 출현은 대체로 신생의 것일 때 더 가공할 힘으로 느껴진다. 디지털과 인터넷의 출현이 그랬고,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그러하다. 최근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란 말로 자본주의의 번영을 또 다시 가공해냈다. 인문학이나 예술계에는 '포스트디지털'이니 '포스트온라인'이란 개념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디지털도 부족해 이제는 디지털 '이후'의 신종 기술로 갱신한 자본주의 세계를 축복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기술은 현실의 골 사이사이 스며들고 틀어박혀 일상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따져보면 오늘 '포스트-' 논의에는 뭔가 이전 기술 혁명만큼이나 더 큰 무엇인가가 우리의 당대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디지털을 사회 지배의 상수로 보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의도만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모두가 1990년대 인터넷의 대중화 이래 새롭게 맞이하는 오늘 2010년대 '포스트' 상황과 국면이 무엇일까를 차분히 살펴보는 현실 파악의 자세 또한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데이터 조건의 '포스트'적 의미, 특히 '데이터과잉' 현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의 역사와 생의 기억들이 첨단 기술적 저장장치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일상 데이터들이 이제까지 사피엔스 인류가 만들어낸 기록의 양을 능가하는 '빅데이터' 국면을 살핀다. 무엇보다 이 글은 데이터과잉 상황이 자본과 권력의 의도 아래 마련됐지만, 비판적 인문학의 지혜를 통해 이로부터 새로운 기록의 정치를 기획하려 한다. 구조적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 생산·가공·분석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아카이브적 선회'(an archival turn)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동시에 비판적 디지털인문학의 가치를 통해 아카이브 정의(定義)와 대항기록의 정치를 공고히 하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다. 이 글은 기술을 과대포장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로 매개되어 새롭게 재구성되는 역사 기록의 비판적 방법론 모색과 함께 기억 기술의 힘에 기댄 디지털인문학적 가치와 지혜를 찾는데 목적을 둔다.

## 디지털인문학과 ‘고슴여우’의 지혜

인문학이 이제까지 대학에서 중요한 학문이 된 근거에는 학생들에게 현명한 삶의 지혜를 갖게 하고 인간 사이에 협력과 호혜의 방도를 고민케 하는 현실 개입의 정서 때문이라 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인문학의 ‘위기’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사태는 사실상 이 같은 덕목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제까지의 교육 방식에서 생긴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대학 바깥으로부터 진행되어왔던 불순한 압박의 산물이다. 1995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으로 상징되는 교육계 바깥의 시장 권력, 특히, 신자유주의의 경쟁 원리와 자본주의적 교육 시장 질서에 의한 지독한 압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놔두면 존재하지 않을 오늘의 인문학 ‘위기’는 정작 안은 평온한데 바깥에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꼴이다. 어쨌거나 현재가 위기라는 망상은 안팎으로 전염이 되어 인문학자들 자신들도 이를 자명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마치 중국 문혁 시기처럼, 인문학자들 스스로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저 놀고먹으면서 고상한 지식 문답의 처소인양 행세했다는 것을 반성하며 소명하려는 형국이다. 그들 자신이 인문학의 목에 핏빛 참회의 팻말을 건 채 조리돌림 당하는 성토대회나 인문학 화형식조차 불사한다. 예컨대, 대학 재정지원을 미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 대상 학과들 가운데 인문학 학과들은 퇴출과 정원 조정 대상 1호가 됐다. 반면에 이상하리만치 인문학 전공자를 신입사원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늘의 재벌 기업들은 그들의 직원연수용 교양 프로그램에서 유독 인문학 강연으로 바람을 잡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지원의 시민교양강좌의 각종 무대 행사장에는 ‘인스턴트 인문학’으로 스타가 된 자들의 속 빈 헛기침만 요란하다. 기괴한 현실이다.

국내 대학들이 다들 인문학의 ‘위기’라는 깃발을 들면서, 인문학의 우산 아래 놓인 학과들은 ‘디지털’과 접 붙어 기생하는 방식을 중요한 시장 생존 전략으로 택했다. 명목상 2014년 한국연구재단이 학술 사업 지원을 시작하면서 아주 최근에서야 우린 ‘디지털인문학’의 명칭을 공식화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가공된 위기론과 뒤늦은 공식화된 명칭을 갖고 디지털인문학을 시작했다. 교육정책 담당자는 이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문학의 지혜로운 처세술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서구에서조차 ‘디지털인문학’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만은 학문적 실용성과 이론적 확장성의 가치라는 학술 연구적 관심사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인다.<sup>48)</sup> 서구는 적어도 1990년대 이후에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 패러다임의 지배적 구성에 따라 어떻게 인문학의 접근법과 방법론을 쇄신하고 확장할 것인가의 실용적 가능성과 기존 이론적 접근의 질적 변화에 주된 관심을 두고 그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인쇄 매체 중심의 환경에서 기술의 상호작용성을 보장한 멀티미디어로 보완했을 때 인문학의 지식 생산, 전달, 공유 회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질적이고 주관적이고 참여자의 우발성에 기대 정성적인 분석을 좀 더 ‘과학적’ 방법으로 보완했을 때 우리 인식의 지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기존 인문학자 외에 프로그램 개발자, 아키비스트, 스토리텔링 작가 등과의 대형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어떻게 특정의 역사 기록이나 인문 고서적을 좀 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입각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거나 시각화할 것인가? 이와 같은 실제적 문제의식들이 중요한 화두들이었다.

48) Schreibman, Susan (2004). *A Companion to Digital Humanities*. MA: Blackwell Publishing, 그리고, Svensson, Patrik (2012). The Landscape of Digital Humanities, *Digital Humanities Quarterly*, 4(1), Available at: <http://digitalhumanities.org/dhq/vol/4/1/000080/000080.html> 참고.

서구 학계는 디지털인문학의 실용적이고 질적인 확장성에 주목했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공들였던 분야는 아날로그로 남아있는 인문학적 학문 기록을 디지털로 전환해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재현하는데 공을 들였다. 사실상 서구 역사에서 디지털인문학을 발생학적으로 보자면, 인문학 텍스트의 전자적 부호화(encoding) 혹은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에서 찾고 있음은 흥미롭다. 아날로그 인쇄본의 디지털 색인과 기록 작업이 그 모체인 것이다. 한 때 이는 ‘전산인문학’(Humanities Computing)이라고 불렸고, 실무적으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전산학자나 프로그래머가 중심이 되어 시스템 설계를 맡고 서지학자나 역사학자들에게 데이터 검색의 전산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디지털인문학에서 줄곧 유래로 언급되는 것들은 주로 인문학 서적들의 색인 작업이나 역사 기록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들이다. 예를 들어, 서구는 전산인문학의 가장 최초 역사로 기록되는 사건을, 1949년 예수회 신부였던 로베르토 부사(Roberto Busa)가 자신의 천직이던 토마스 아퀴나스 작품 연구를 위한 용어색인 작업을 IBM의 도움으로 완성한 데서 찾고 있다. IBM은 그로부터 무려 30여년의 공을 들여 1980년에 일명 ‘인덱스 토미스티쿠스’(Index Thomisticus)란 디지털 색인 프로그램을 완성한다.<sup>49)</sup>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언어학 분석의 전산학적 방법론들이 개발·확장되면서 인문학의 학적 대상이었던 아날로그 기록들을 디지털 형태로 연구에 응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늘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우에는, 1967년 하버드 대학 엔칭연구소의 지원으로 사학자 에드워드 와그너가 송호준 교수와 함께 14,600개의 ‘문과방목(文科榜目)’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문과프로젝트’(Munkwa Project)가 최초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로 기록된다.<sup>50)</sup> 문과방목은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합격자의 기록은 물론이고 그와 관계된 친족 기록까지 데이터로 담았다. 이 사례가 외국 교수가 중심이 돼 이뤄졌다면 국내 순수 인문학 정보 작업의 효시이자 체계적 전산화의 사례로는 『조선왕조실록 CD-ROM』(1992~1995)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전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수록과 검색 기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고, 고문서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업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5부터 시작해 2011년까지 확대 완성한, 약 16만명의 역사 인물정보 색인 프로그램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이 대표적인 인문학 데이터베이스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국책형 DB 구축 프로젝트들은 관련 자료의 대중적 접근과 확산이란 성과를 나뉠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진행되었던 디지털인문학의 학문적 논의와 같은 파생적 효과는 크게 불러오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인문학이란 신종 인문학 장르가 출현한 데는 디지털과 인터넷 혁명이 가장 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 1990년대 중반에 크게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인간의 공통 기억을 가상의 저장고(repository)에 남기고 역사와 사건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의 기억들을 제 3의 비물질 가상계의 저장고나 데이터베이스 은행 등 다양한 디지털 저장 장치에 축적해 선별·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호출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본 기록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은 인터넷 초기에 보자면 일대 기술 혁신이었다. 이는

49) Burdick, Anne, Johanna Drucker, Peter Lunenfeld, Todo Presner & Jeffrey Schnapp (2012). *Digital humanities*, Cambridge, Mass.: MIT Press, p. 123.

50) 김현·임영상·김바로 (2016). 『디지털 인문학 입문』, 휴복스.

기존 인문학자들에게 흘러간 역사 기록을 디지털로 전환해 아카이빙하려는 욕망을 확대했고, 이 가운데 서구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과거사 기록을 디지털 양식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거나 이에 대한 이용자의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에 맞춰졌다.

미국 인문학재단(NEH)이 2008년에 디지털인문학지원단을 설치하고 디지털인문학을 일종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논의하고 다양한 방법론적 도구들을 개발하려는 입장에서 교육 재정 지원을 벌였던 것과 달리, 우리의 '디지털인문학'은 대학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란 외부 조건에 의해 탄력을 받아 만들어졌고 동시에 시장이 주도한 '위기' 변수에 좀 더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는 점차 기업의 입맛에 맞춘, 디지털 스토리텔링, 데이터 시각화(인포그래픽),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의 주요 디지털인문학 교육 의제들이 학생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여겨졌다. 국내 디지털인문학의 기이한 위상과 관련해서 최근 『문화/과학』 87호 특집 글을 통해 임태훈은 꽤 혹독한 평가를 내린다. 그는 성과주의와 실용론에 포위된 대학과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헛겍질만을 부여잡아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어차피 기술과 함께 가야할 상황이 우리의 현재 조건이자 미래이지만, 이들 기술을 매개로 “협력과 공생의 가치를 생산하는 장치”로 대학을, 그리고 그 속에서 디지털인문학을 좀 더 급진적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최근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주도하고 각 대학들이 좀비처럼 미친 듯 몰리는 각종 산학협력 지원 사업(프라임)이나 인문역량 강화 사업(코어)의 사례들은, 연구 사업에 흘러드는 돈에 휘청거리는 현대 대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오늘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혁신적 물성을, 탐욕과 경쟁의 시장 언어의 밑밥으로 던질 것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기존 인문학적 전통이 지닌 현실 변혁의 언어를 버리고 다가올 문명사적 미래의 사회적 급진성을 극대화하는데 기폭제로 삼을 것을 요청한다.<sup>51)</sup> 그가 '디지털인문학'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 여전히 '디지털-이전'의 비판적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소환하려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물론 그 인문학의 현실은 이제 '디지털'과 한몸이라 어찌해도 떨어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최신 국면임을 전제한다.

나는 임태훈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오늘 디지털인문학의 지향을 서구식 은유로 에둘러 가볼까 한다. 고슴도치(hedgehog)란 동물을 보자. 그는 주위에 눈이 어두운 대신 한 곳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파고드는 습성이 있다. 이 상징적 동물은 원본성, 진실성, 역사성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 인문학이 지닌 삶의 지혜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고슴도치식 지혜란 역사적 정의에 입각해서 역사 기록을 선별, 보존하며 이를 후대 사회에 계속해 그 의미를 전승하는 능력에 해당한다. 이 지혜의 기록은 객관화되고 진실된 역사의 기록이고 공적인 작업 결과물이자 후대 인류와의 호혜를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인문학 본연의 임무와도 연결된다. 반면 여우(fox)란 동물은, 꾀 많고 두루 많이 알고 바깥의 정세에 민감하고 밝다. 여우란 상징은 고슴도치와 달리 디지털 감수성 혹은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뉴미디어 감각을 이끄는 추동력에 비견할 수 있다. 고슴도치마냥 역사적 깊이와 사회적 맥락을 우리에게 부여하진 못해도 여우는 바깥에서 벌어지는 세상만사와 그 변경을 사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내화하는데 탁월하다. 결국, 기능과 효율의 시장 욕망에 좌우되는 '디지털인문학'을 지양하고 이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고슴도치와 여우의 우화적 교배종인 '고슴여우'(Hedgefox)의 지혜가 필요하다.<sup>52)</sup> 캐서린 헤일즈는 고슴여우와 비슷한 맥락에서 디지털인문학을 디지털미디어의 '쿨'한

51) 임태훈, 「협력과 공생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문화/과학』, 87호(가을호), 문화과학사, 근간.

것과 인문학자들의 문화정치적 실천이 합쳐진 연대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53)</sup> 고슴여우의 지혜란, 그렇게 새로운 데이터 기술의 탄력적 응용 능력을 인문학의 수족으로 삼 으면서도 동시에 당대 사회를 읽고 개입해 삶의 지혜를 얻고 공유하는 비판적 인문학의 본바탕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

## 데이터 과잉: Error 404 - History Page Not Found

디지털인문학을 수행하기 위해 고슴여우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말했지만, 오늘날 디지털 환경은 여전히 복잡다단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기란 꽤 어렵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인문학의 난제로 떠오른 ‘데이터과잉’(infoglut)의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애초 전산인문학의 과제이기도 했던 기록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공정은 이제 옛말이 됐다. 초기에 아날로그의 인쇄된 책을 디지털로 색인 작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 양으로 인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포스트디지털’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포스트디지털 국면에서 기억을 기록하는데 점점 커지는 난제는, 소셜웹이나 채팅을 통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데이터의 범위와 사이즈이다. 오늘날 ‘빅데이터’란 말은 이를 지칭하는 대표어가 됐다. 예를 들어, 구글북스는 10여년간 광학 문자판독(OCR)을 통해 3천만권 이상의 전세계 아날로그 책을 디지털화했다. 지구상 출간된 책들 네 권 중 한 권 꼴이다.<sup>54)</sup>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데이터 생산의 측면은 인류가 이룬 과거 문명만큼이나 대중이 생산하는 정제되지 않는 정동의 흐름들, 특히 감정과 욕망의 흐름을 즉각·즉자적으로 데이터공간에 배설하거나 서로 속닥거리며 주고받으면서 비정형 발화 데이터들을 거의 매일같이 디지털공간에 쏟아낸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매순간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신체기록’(life-logging) 등 생체 정보들의 양산 또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범위와 대상을 가늠하는데 큰 어려움을 낳고 있다. 생체기계(스마트 피트니스 워치나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기계(소셜웹과 스마트폰)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배설’(exhaust)의 향연은 과거 인류의 그 어떤 시대의 기록을 압도하고 있다. “이제 역사가들은 희소성이 아니라 풍부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sup>55)</sup>

이들로부터 무엇을 선별적으로 남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에 관한 기록의 인문학적 관심사는,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 먹고 사는 많은 닷컴 기업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저 거대한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인간의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 모두를 실시간으로 저장해 필요에 의해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 이들 데이터의 데이터들, 메타데이터(metadata)를 가지고 원하는 결과와 패턴을 찾는데 골몰한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적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해진 진본성이나 역사성을 담지한 장소나 사건의 공식 기록 작업은, 포스트디지털 국면에서 닷컴 기업들의 새로운 무차별적인 기억 저장과 데이터 관리 방식과 적대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52) Burdick, *et. al.*, (2012). pp.116-117 참고.

53) Hayles, N. Katherine (2012). Chapter 2. The digital humanities: Engaging the issues (pp. 23-54), *How We Think: Digital Media and Contemporary Technogene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4) 에레즈 에이든·장바티스트 미셸 (2015).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김재중 역, 사계절, 74-79 쪽.

55) Berry, David M. ed. (2012). *Understanding Digital Humanities*, Palgrave Macmillan, p.2.



없다. 후기자본주의의 지배적 현실에서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깊이 있는 사유를 거치지 않은 신체 감정 상태의 즉각적 발화와 동등한 보편 현상이 됐다. 이 때 데이터 기록은 알고리즘 분석을 위해 축적되는 재료에 불과하고, 개별적 가치를 거세한 거대 데이터장치의 기계 메커니즘에 의해 관리된다. 이로부터 문제는 전통적 인문학적 기록의 정의, 선별, 평가, 분류, 보관 등 역사적인 원칙들이 의미를 상실하는 데서 생긴다.

오로지 대중이 만들어내는 신체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누적되고 끊임없이 특정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관리자가 원하는 특정의 패턴들로 분석된다. 이용자 개인(individual)의 발화들은 '갈거리 찢겨'(dividual) 어딘가 데이터베이스에 조각으로 처박히지만,<sup>56)</sup> 누군가에 의해 알고리즘 명령으로 호출되기 전까지 그 어떤 사건사적·사회사적 의미를 만들지는 못하는 처지가 된다. 이 새로운 데이터기계 질서 속에서는 특정의 개별적 기록이 지닌 가치와 진실 등 그 사회사적 사건의 흔적들이 완전히 지워지고, 저장 데이터의 무한한 생성과 유입,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들의 관계로부터 '특정 경향을 발견하는 행위'(pattern recognition)만이 중요하다.<sup>57)</sup> 포스트 국면에서 기억은 미래를 위한 재료와 떨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만 데이터로 가치를 얻고 누적될 지위를 갖는다. 지배적 알고리즘의 산식에는 개인적 차이, 감수성, 질감들이 무시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유하는 집단 욕망들의 패턴을 포착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디지털유산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인문학적 기록의 덕목들, 사료의 역사성, 특수성, 다양성 등은 이미 기계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새로운 데이터의 세계에서는 특정의 지배적 알고리즘 장치에 의해 계산된 수식이 사건사적 기록의 가치를 기계적으로 서열화하거나 심한 경우에 아예 이를 부재한 값으로 매긴다. 예컨대, 플랫폼 운영자의 자의적 데이터 큐레이션에 의한 기록의 배열은 물론이고,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는 링크의 상대적 가중치, 그리고 그 외 유사도, 유료 스폰서, 대중의 데이터 선호도, 서버의 지정학적 위치, 생성 시간 값에 따라 데이터와 기록의 의미값이 이용자에 따라 상대화되어 주어진다. 최근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특정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견해를 축소하거나 억압했다는 혐의를 받는 페이스북의 필터링 알고리즘 실험을 상기해 보라.<sup>58)</sup> 물론 알고리즘의 데이터 서열화는 마치 '암흑상자(블랙박스)' 속에서 작동하는 기계장치와 같아서, 겉보기에 일반인은 알 수도 없을뿐더러 마치 모순 없이 작동하는 '과학적'인 외양을 띤다. 기록의 생성과 유지가 암흑상자 같은 까닭은, 이와 같은 포스트 국면의 기록장치들이 어떤 폭압적이고 억압적 방식(압력, 사찰, 도·감청, 제재, 지침 등)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데이터 알고리즘 장치를 통해 시스템 개발자의 의도대로 특정 기록을 배제하거나 원하는 기록의 서열과 가중치 값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56) Deleuze, Gilles. (1990/1995). *Negotiations (1972-1990)*.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57) Pasquinelli, Matteo (forthcoming). Metadata Society. Rosi Braidotti and Maria Hlavajova (eds.), *Posthuman Glossary*. London: Bloomsbury.

58) Ochigame, Rodrigo and Holston, James (2016). Filtering Dissent: Social Media and Land Struggles in Brazil. *New Left Review* 99, May-June.

## 디지털인문학과 부상하는 기록의 정치학

주로 자본에 의해 생성된 동시대 데이터과잉이란 국면은 비판적 디지털인문학, 특히 기록의 의미론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무질서한 듯 보이는 데이터 쓰나미 현상에서 권력의 장치 너머 다중의 발화 기록을 어떻게 구분해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완고한 듯 보이는 이들 데이터 장치의 자장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들 자신의 발화 데이터를 빚겨가게 할 것인가? 등등 사실상 이와 같은 데이터 기록의 비판적, 대안적 질문들은 디지털인문학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고슴여우’의 지혜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사태의 본질로 보자면, 오늘날 대중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자본과 권력의 다이어그램 장치 안에서 작동하기도 하지만, 대중의 욕망과 감정의 역동으로 살아 움직이며 누리꾼 ‘떼’ 기억과 기록의 발생적·관계적 맥락으로 흘러들기도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대중 정서의 기록이 점점 인문학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점에서, 데이터 기술로 가능해진 다중 욕망의 관계적 집합인 ‘떼’(condividuals/ superjects) 기억은 오히려 역사적 아카이브 정의(定義)의 해석을 확산하고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sup>59)</sup> 즉 소셜 클라우드와 웹은 협업의 기억 기술을 복돋우고, 원격네트워크 소통은 ‘집합지성’과 온라인 협업의 힘을 추동하고, 디지털 기록 생산의 대중화는 지배적 공기록과 다른 ‘대항기록’과 ‘평행기록’의 가능성을 마련한다. 이제까지 아키비스트에 의한 관습화된 공기록 중심의 전문가주의를 넘어서서, ‘떼’ 다중이 시대적 감응을 통해 만들어내는 기록의 대중적 감염과 전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기록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는 대중의 데이터가 일차적으로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포획될 노이즈 데이터이자 랜덤 데이터로 분류될 운명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공감의 네트워크 전이로 내파되고 특정 사회적 이슈에 따라 거대한 정념의 흐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을 매개해 벌어지는 르포르타주 등 현장에 관한 질문과 링크, 역사적 사건 당사자, 현장예술가, 그리고 시민활동가들이 공동으로 협업해 벌이는 사회사적 사건의 기록 작업(용산참사 레아 <끝나지 않은 전시>와 수많은 관련 기록 작업들, 콜트콜텍 스쿼트 공장 전시, 4.16 시민 기록저장소 등), 소셜웹 기반 특정 사회사적 사건의 ‘떼’ 사회미학적 흐름과 재해석(2002년 미션.효순 사건 이래 주요한 사회사적 사건들에 반응해 보여줬던 누리꾼들의 온라인 활동상들),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적 소수자들(여성, LGBTQ, 도시빈민, 청소년 등)의 온라인 자율 공간 등은 살아있고 생성 중의 온라인 대항기록의 현장이다. 이들이 중요한 까닭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공기록의 지배적 기록 주체들이 방관하거나 잊고 있는 임무를 대신해 그들 스스로 대항 기억과 기록을 구성한다는 데 있다. 역사·사회사적 기억의 은폐와 허구적 기록이 공적 현실을 잠식하는 때일수록 이같은 ‘떼’ 다중이 구성하는 대항기록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바로 이 ‘떼’ 기록의 심층 관찰과 분석을 통해 다중의 새로운 사회적 감각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는 주류화된 역사기록과 별개로 일시성, 일상성, 주관성, 휘발성 등의 특징을 지닌 사회사적 데이터 기억의 편린과 욕망 덩어리들을 어떻게 역사 기록화 과정에 끌어들이

59) Raunig, Gerald. (2013). Dividuum and condividuality (pp.131-143). in Artemy Magun (ed.), *Politics of the One: Concepts of the One and the Many in Contemporary Thought*. NY: Bloomsbury.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동시대 인문학적 과제와 연계한다.

둘째로, 데이터과잉 현실은 소셜웹 상에서 소문, 뒷담화, 괴담 등 민초들의 무의식 구조를 표면 위로 드러내면서 디지털 인문학자의 세밀한 관찰을 기다리고 그것의 역사적 복원을 기다린다. 최신 디지털 '영매'(medium)가 지닌 기술적 속성은, 휘발성을 지닌 다중의 발화들을 좀 더 확장하고 한데 모아 이것의 힘을 실어 나르는 형식으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광우병 괴담, 메르스 괴담, 사드 괴담, 울산-부산 지진 괴담 등은 현실 역사적 사건의 감수성을 기록하고 공식화된 사실의 질서 뒷단에서 속삭이지만, 디지털 영매의 힘으로 거대한 소문의 긴꼬리를 형성한다. 포스트디지털 국면은 이들 휘발성 짙은 소문의 발화를 주도된 진실에 맞서는 '길 위의 혹은 소문의 아카이브'<sup>60)</sup> 혹은 '감수성의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즉 소문이나 괴담은 기록의 진실성을 조작하는 권력의 바깥에 거하고 정리될 운명에 처하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거부한다. 언젠든 소문이나 괴담은 권력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역사적 기록의 지위로 등극하려 한다. 데이터과잉 시대에 이르러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가 되고 재현의 담론 질서가 과포화되어 혼동의 상태가 올 때, 우리가 더욱 더 주의 깊게 관찰할 대상은 '때' 다중이 만들어내는 온라인상의 소문과 괴담들이다. 역사적 사건의 온전한 재현 기록을 위해서나, 출처의 집중이나 위계성 혹은 불완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나, 기록 다층성과 상호 참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누리꾼 다중이 몰래 속삭이는 비공식 데이터 기록의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무바라크 시대를 종식하고자 2011년 불었던 이집트 민중의 '1·25 혁명'을 기록화하기 위해 이집트 역사가들과 기록가들은, 후대에 공식 기록을 넘어서 선동 팜플렛, 멀티미디어 자료들, 페이스북과 트윗 내용 등 온라인의 비공식 '때' 다중의 기록까지 폭넓게 반독재 투쟁 현장을 묘사하는 데이터들로 보고 이들을 수집해 아카이빙 했다.<sup>61)</sup> 이는 혁명 전야에 괴담과 소문으로 치부되는 것들이자 탄압의 대상물이기도 했다. 기록학에서는 이렇듯 민초들의 괴담과 소문의 복원을 '평행 출처주의'(parallel provenance)라 일컫는다. 이는 전문가와 통치자에 의해 유지되는 지배적 기록의 단일 출처주의를 벗어나 사건 당사자와 관련자 등 아래로부터의 대항과 소문과 괴담의 기록들을 발굴하는 역사 기억의 민주화 과정을 뜻한다.<sup>62)</sup> 포스트 데이터 국면에 이르면 평행성은 더욱 더 '때' 다중으로부터 생성된 소문의 담론장과 이의 전염에 의해 퍼져 가는 온라인 대항기록의 생성과 의미에 쏠리게 된다. 공식화된 권력의 질서가 소문과 괴담의 진원지를 봉쇄하고 차단하려 한다면, 새로운 인문학은 이를 사회사적 사건 기록의 진원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새로운 역사 해석의 질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60) 신지영 (2016). 『마이네리티 코문: 동아시아 이방인이 듣고 쓰는 마을의 시공간』, 갈무리.

61)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사이트 등 휘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보관과 저장 방식의 당면한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집트혁명 관련 데이터 시각화 기록 사이트(<http://tahrirarchives.com/>)는 우리에게 참조할만한 '포스트디지털'시대 아카이브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아카이브 사이트의 공식 명칭이기도 한 VOX POPULI는 예술가 라라 발라디(Lara Baladi)의 "Vox Populi: Archiving a Revolution in the Digital Age"란 프로젝트 작업이기도 하다. 역사 아카이브의 구성에 있어서, 현대 누리꾼들의 직관적 정보 검색 방식을 잘 활용해서 구축했다. 이는 직업적 예술 작가의 데이터의 위상학적 지각 능력과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시멘틱한 접근인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http://arts.mit.edu/artists/lara-baladi/> 참고.

62) 이경래 (2014).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와 '평행출처주의'의 현재적 의미」. 『기록학연구』 40, 29-60쪽.

셋째, 포스트식민주의의 주제이기도 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사회로부터 비가시적 수면 아래로 물러나 있는 사회적 주체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주고받는 마이너리티의 내밀한 소통 기록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제까지 인문학의 기록 작업으로부터 소홀하게 다뤄진 하류계급, 여성, 젠더, 장애인, 다문화주체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즉 사회적 소수자에 의해 진술된 변경의 발화에 눈길을 돌리는 일이다. 디지털인문학은 소문과 괴담의 기록만큼이나 데이터 소수 주체들이 발화하는 환경과 그 속에서 진행되는 발화 방식의 특성을 주목해야 한다. 소수자 정치는 현실의 남성주의적이고 넷우익적 억압과 혐오 정서가 강할수록 그들의 데이터와 기록을 온라인 내부에 ‘숨기기’(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와 남성 동성애자 사이트 이반시티 등 접근 제한 설정을 통한 자기고백적·치유적 글쓰기)나 ‘드러내기’(퀴어락, 일다 등 성적 소수자 사이트와 소셜웹 활동 등)의 방식을 통해 유지해 왔다. 넷이 그들의 신원을 가리는 얼굴 마스크이자 선글라스였던 셈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힘이 약할수록 물리적 현실계의 그늘진 변경으로 물러나 있거나 온라인의 비물질성에 더욱 의존해 사회적 발화를 시도하려 한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아카이빙은 비공식 기록에서조차 주변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 시야에서도 사라진다. 소수성의 문화정치를 기록의 장으로 끌어오려면 결국 온·오프라인에 걸쳐 파열음을 내는 그들의 데이터 활동 공간을 주목해야만 존재감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은 혐오로 가득한 청년 넷우익의 근거지이기도 하지만, 이들 변경으로 흩어지고 소외된 이들의 마이너리티 기록을 공식화하는 곳이기도 하다.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를 정례화하고 아카이브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에 따라 이들은 사회사적 기록에서 더 이상 존재감이 사라진 주체로 남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건사들, 평택 미군기지, 용산참사, 제주강정마을, 희망버스, 밀양 송전탑투쟁, 쌍용자동차 노조투쟁, 4.16 세월호참사, 강남역과 구의역 사고 등에서 보여줬던 대중의 온·오프라인 흐름과 감수성의 정치는 사회적으로도 독특하고 역사적으로도 기록의 중요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강남역 여성혐오에 기댄 살인사건과 지하철 구의역 청년노동자의 사망, 이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포스트잇 감수성을 매개로 발화하는 온라인 논쟁의 후폭풍들 (여혐의 준동과 계속된 여성들의 소셜-포스트잇 추모와 거리행진 등)의 과정을 보자. 이는 사회로부터 잊혀진 ‘떼’ 다중의 사회사적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발화하는 소수자들의 정동 흐름이자 아우성으로 봐야 한다. 일견 물리적 공간의 대자보와 포스트잇은 소셜웹으로 다시 (재)매개되어 사회적 소수자들의 비제도적 대항기록으로 각인되는 경로를 택한다. 이들 사례에서 보여지는 바처럼, 쉽게 잊히고 사라질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사회적 약자들의 발화에 대한 추적과 보존은 디지털인문학에서 새롭게 꺼안고 다뤄야 할 영역임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새로운 데이터의 세계에서 기업과 권력이 축적 및 관리하는 기록에의 공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게릴라식 정보 공개와 내부자 폭로가 그 중 효과적인 시민 공유 기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데이터 해티비즘’(data hacktivism)의 논리를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위키릭스(WikiLeaks)의 내부 데이터 폭로는 한 국가 권력을 단번에 무너뜨리거나 강건한 권력의 위력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위키릭스는 25만건이 넘는 미국 대사관 외교 문서를 폭로해 굳건한 듯 보이는 수많은 국제 권력들을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위키릭스가 벌이는 권력화된 데이터와 기록의 공개 행위는, 포스트 시대 온라인 대중 자신 스스로 빼앗긴 데이터를 탈환하고 가치 있는 기록을 여럿이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되어 간다. 이는 “사실상 정보공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방법들에 대

한 실제적인 대안이자 정보공개에 공식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 세계에서 정보공개를 확장하는 대안”이기도 하다.<sup>63)</sup> 이는 데이터 통치 권력의 데이터 독점과 장악의 경우에도 흡사하다. 일명 ‘스노우든 아카이브’(https://snowdenarchive.cjfe.org)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미 정보보안국의 프리즘 온라인 감시 기법과 관련해 뉴스, 통계, 인터뷰, 보고서, 기밀 문서 등 내부 문건을 종합해 아카이브로 만든 공개 사이트이다. 스노든 아카이브 사이트는 캐나다 기자들, 대학, 시민단체의 연합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는 일종의 글로벌 대중들이 언제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접근해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아카이브 공유재가 되었다.<sup>64)</sup> 스노우든 아카이브의 의의는 바로 선별적 데이터 폭로로 이뤄지는 해커비즘의 불안정한 공유 방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복하는데 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다종의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는 데이터 기록의 정보 ‘공유지’(the common)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온·오프라인 ‘떼’ 다중이 생산하는 자율적인 역사 기록을 어떻게 전통 공기록과 함께 반영구적으로 공존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63) Findlay, Cassie (2013). People, records and power: What archives can learn from WikiLeaks? *Archives and Manuscripts*, 41(1), 7-22.

64) 내부 폭로의 방식이 여전히 불안정한 데이터 민주화의 방식이라는 점이 최근 위키리크스를 둘러싼 한 두 가지 문제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2016년 7월경, 위키리크스는 민주당내 버나드 샌더스의 내부 조롱 이메일 문건을 폭로 공개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스노우든은 정치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편에서 폭로의 선별과 큐레이션을 주장해, 위키리크스와 서로 데이터 폭로 전술 방식의 미묘한 대립 기류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 하나 더 큰 이슈는 위키리크스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터키 집권당 이메일 폭로 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터키 출신 미국 교수 제이넵 투페키(Zeynep Tufekci)가 밝힌 바처럼, 쿠데타 1주일 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된 터키 집권당 30만개의 이메일이 폭로 공개된 것이, 실상 쿠데타 내막이나 부패와 연결된 데이터가 대부분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zeynep-t.../story\\_b\\_11210068.html](http://www.huffingtonpost.kr/zeynep-t.../story_b_11210068.html) 참고). 그와 달리 정보내용은 집권당의 것이라기 보다는 내국민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여성 데이터나 일반인의 신상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전세계로 노출시킨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해외 신문이나 저널들은 위키리크스의 기존 신용에 의거해 잘못된 오보를 하기까지 해, 위키리크스가 이제껏 중요하게 다뤄왔던 ‘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반대와 무조건 공개 철학이 실질적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은, 어찌됐건 터키 집권 여당과 현 에르도안 대통령의 쿠데타 자작극의 음모론에 대한 위키리크스의 폭로 뒤에 외국으로 연결된 위키리크스 데이터 링크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사실이고, 위키리크스의 폭로 데이터에는 이와 같은 쿠데타 자작극의 입증할만한 증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위키리크스의 데이터 폭로 방식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은 정부 비밀 데이터의 내부자 폭로를 어디까지 인터넷에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적 질문을 던진다.

다른 한편, 스노우든은 터키 집권당 이메일 문건의 폭로에서 위키리크스와 입장을 같이 하다가도 민주당내 경선 후보였던 샌더스에 관한 조롱 문건 폭로에서는 스노우든이 위키리크스쪽에 정보 공개의 범위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연 누구의 입장이 옳은 것일까? 그리고 이미 전세계로 노출된 터키 여성들의 데이터 노출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분명히 위키리크스가 내부 필터링을 수행했을 것 이란 가정 하에 보더라도, 비밀 데이터를 공개 유출할 때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필터링과 큐레이션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올바른 데이터의 공개라는 이념과 대별되는 개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희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선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 아니면 희생이 있더라도 알 권리가 중요한가? 풀기 어려운 숙제다. 이 둘의 가치 사이에 흐르는 데이터 폭로와 공개 범위, 즉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하고 배제할 것인가의 큐레이션의 정치와 관련해 미묘한 갈등 상황들이 앞으로 데이터 해커비즘의 주요 논쟁이 될 듯하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권력을 상대하기에 갈 길이 더 험난하다. 새로운 데이터 대항권력으로 떠오르는 이들 운동방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 디지털인문학의 남겨진 과제들

이 글은 관성화된 인문학의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읽기 위한 시도로 기획됐다. 나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급조된 우리네 디지털인문학의 내용도 졸속으로 기획됐다고 봤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면서도 인문학의 비판적 전통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데이터과잉'으로 생성된 디지털 기록의 구조적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 가운데 데이터 기록의 정치를 통해 디지털인문학이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 영역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글은 무엇보다 이제까지 그저 주류의 그어진 질서 아래 침묵의 나선 속 변경의 웅성거림으로 존재하다가 새로이 전자적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가 들끓고 그 족적을 사회적 발화와 감응의 기록으로 남기는 온라인 '떼' 다중의 지위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불과 최근까지 비제도의 영역과 역사적으로도 비가시권에 머물렀고 그 짧은 휘발적 성격으로 인해 공식 기록으로부터 외면당했던 데이터 군집 '떼'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우리가 온라인 '떼' 다중의 생성주의적 대항기록(정동, 소문, 괴담, 소수성의 발화 등)을 유의미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포스트디지털 국면에서 활개 치는 '죽은' 데이터의 자본/권력 알고리즘의 장치가 이들 자율의 '떼' 기억과 기록을 거세하는 과정에 대항하려는 공통의 지혜가 필요하다. 적어도 앞으로 디지털인문학의 비판적 전통은 이에 모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계는 디지털 기록을 매개로 한 새로운 기술 단계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탄력적이고 상호 교호하는 학문장들(예컨대, 역사학, 기록학, 현장예술의 기록, 사회 르포르타주, 미디어고고학, 문화인류학 등)의 결합에 근거해 비판적 디지털인문학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제까지 인문학내 흩어져 존재해왔던 기록의 '학'이 좀 더 동시대적 포용력을 발휘하려면 이와 같은 학문적 유사성을 지닌 계(係)들간 포괄적 연대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데이터과잉에 맞서 마이너리티 데이터 기록의 정치학을 고안하는데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물론 아직 그 방법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앞서 은유적으로 지적했던 고슴여우의 깊고도 너른 통찰과 지혜로부터 배워야하지 않을까 싶다.

고슴여우의 지혜는 결국 찢긴 현실에 대항하기 위해 데이터 기술을 매개 삼아 이들 소외된 다중의 기록을 포함해 새로운 아카이브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의 데이터 포획장치에 빗겨서 온라인을 서성이는 누리꾼 다중의 강렬한 사회적 움직임의 포착, 그들 자신의 기록 방식과 (재)매개 행위, 그리고 마이너리티의 숨겨진 발화 기록 과정을 포착하는 기억과 기록의 새로운 문화정치를 구상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디지털인문학의 화급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과제를 외면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위기'이다. <끝>



토론 3

**김성일**  
(경희대학교)





## CMC 시대의 인간존재와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이진오  
(경희대학교)

### I. 글을 시작하며

대학의 교양교육은 미래를 이끌 세대들에게 인간성을 고양시켜주고(cultum humanitas), 현재의 가치는 물론이고 미래적 가치를 탐색할 기회를 주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대학 교양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와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인간존재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양교육은 진정한 인간학(인문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후마니타스(인간성 고양)’를 지향하는 교양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오늘날 과학기술문명에 의해 변화된 인간존재를 먼저 밝히지 않고, 휴머니즘 교육이나 전인적 인간, 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간을 기른다는 주장은 선결문제 오류일 뿐만 아니라 공허하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혁명적으로 변했다. 인간존재가 바뀐 것이다.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환경에서 인간존재는 또다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인문학과 인문학에 토대를 둔 교양교육의 역할이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대상인 인간존재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21세기 인문학과 교양교육은 21세기 인간존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연구에서 필자는 후기자본주의적 사회질서와 본질주의를 해체한 포스트 모던한 세계관이 인간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는 주제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필자는 CMC가 야기한 변화와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탐색해보도록 하겠다. 어떤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 이후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불과 수세기전 인간의 삶과 현재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으므로 인간존재 역시 크게 변화했고, 변화를 가속시키는 첨단과학에 의해 인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으로 몇십년 지나지 않아,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생리기능, 면역계, 수명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능력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전공학이 천재 생쥐를 만들 수 있다면 천재 인간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일부일처제 발쥐를 창조할 수 있다면 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하도록 유전적으로 타고난 인간을 왜 못

만들겠는가?”<sup>65)</sup>

역사학자 하라리는 사피엔스가 걸어온 7만 년의 역사를 추적한 끝에 2100년이면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현생인류는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또한 학문의 방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만일 사피엔스의 역사가 정말 막을 내릴 참이라면, 우리는 그 마지막 세대로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데 남은 시간의 일부를 바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인간 강화’ 문제라고도 불리는 이 질문에 비하면 오늘날 정치인이나 철학자, 학자, 보통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논쟁은 사소한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의 종교, 이데올로기, 국가, 계급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과 함께 사라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sup>66)</sup>

하라리의 과장된 진단처럼 현재 사피엔스의 존재양상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이 새로운 종의 진화로 인해서 백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춘기 시절의 문제가 성인이 된 후 저절로 해체되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듯이 인간이 고민할 문제들은 과학이 가져올 새로운 삶의 방식과 그로 인한 인간존재 양상의 변화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가 있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첨단과학의 발전에서 보듯이 그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교육이 100년 대계라면 그러한 변화에 지금부터 대응해야한다.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까지 인간존재를 탐구하는 인문학과 이러한 인문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 교양교육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 그러한 이행이후를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그렇다면 인문학과 교양교육은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 본 연구는 과학이 우리에게 이미 가져온 변화 중 CMC의 영향에 집중하여 교양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탐구해 볼 것이다. 이하에서 우리는 CMC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하고,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볼 것이다.

## II. 매체와 인간존재

세상이 인간(의식)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은 항상 매개(media)를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난다. 감각기관이라는 1차적 매개와 언어나 사고방식과 같은 2차적 매개가 있다. 책이나 신문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나, 기존의 거의 모든 매체의 정보를 다 담아낸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가 인간이 세계를 만나는 통로로서 존재한다. 삽과 칼이라는 매개물이 세상을 만날 때 인간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연장해줬듯이 이제 CMC는 인간이 세상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매개이자 인간의 연장으로 존재한다. 어떤 매개를 지니느냐에 따라 세상을 만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존재 또한 변한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것이라 할지라도 편지라는 매체형식을 빌리느냐 아니면 전화라는 매체형식을 빌리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체계가 달라진다. 매체는 정보 전달의 수단을 넘어서 인식

65)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조현욱 옮김, 이태수 감수, 김영사, 2015, p. 570.

66) 유발 하라리, 위와 같은 책 p. 585.

들과 소통의 구조는 물론이고 사회 구조전반의 성격까지도 재편한다. 매체란 단순한 정보전달 장치가 아니라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대상인 것이다.

휴대폰과 같은 CMC 기기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적 주제로 분류되는 정신과 물질 개념, 그리고 인식론적 주제로 분류되는 경험과 관념의 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는 것을”<sup>67)</sup> 확인할 수 있다. CMC뿐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사이버네틱스 등 첨단 디지털 기기에 대한 연구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나 인간의 정체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맥루언에 따르면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Media is extensions of Men). 산업혁명 이후 기계의 시대(Mechanical age)에 우리의 존재는 바퀴, 옷, 책, 망원경, 무기 등에 의해 물리적인(physical)으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전자시대(Electric age)에 CMC에 의해 우리의 중추신경 시스템과 의식이 확장되었다. 미디어는 중립적인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고 바라보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다. 미디어는 마사지하듯이 우리의 뇌를 주무르며 우리의 생각과 문화를 형성한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세계와 만난다. 따라서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성격에 의해 대상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sup>68)</sup>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print’란 미디어가 있었다. 인간의 관계는 ‘print’의 특징에 의해 맺어졌다. 이제 우리는 ‘internet’이란 미디어에 의해 관계를 형성한다. 미디어가 우리의 관계와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미디어’ 그 자체를 이해해야만 한다.

포스터(M. Poster)는 탈구조주의 이론을 전자적으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현상 분석에 적용한다. 이때 포스터는 소통을 하는 주체가 객관세계와 맺는 관계나 그 세계에서 주체의 위상 등 ‘주체의 형태’에 주목한다.<sup>69)</sup> 그에 따르면 주체란 데카르트적인 절대 시공간의 한 지점에 위치하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대상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전자적으로 매개된 환경에서 주체는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다중화되고, 메시지와 광고에 의해 탈맥락화 되고 해체되면서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포스터가 전자미디어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들뢰즈나 가타리가 『앙띠 오이디푸스』<sup>70)</sup>에서 강조한 것과 유사하다. 즉 ‘나’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중심화되었거나 일정한 자아에 의해 한정된 존재가 아니다. 그 대신 나는 사회적 공간을 가로질러 분열되어 해체되고 분산된 채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주체’가 매체라는 ‘대상’과 맺는 관계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를 통해서 변화된 인간존재를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시몽동의 기술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몽동(G. Simondon)은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1958), 『상상력과 발명』(1965-66 강의), 『기술에서의 발명』(1968-76 강의 및 강연), 『커뮤니케이션과 정보』(1960-76 강의 및 강연)을 통해서 과학기술과 인간존재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실체화된 형상이 아니라 ‘관계와 정보 소통’을 발생적 존재론의 토대로 삼아 구축된 시몽동의 기술철학은 CMC 시대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해준다.<sup>71)</sup>

시몽동은 주체에 의한 대상의 인식 가능성과 존재 조건보다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 자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주체로서의 존재와 대상으로서의 존재는 동일한 원초적 실체로부터 비롯한다”<sup>72)</sup>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대상의 존재 조건이나 인식 가

67) 고현범, 『휴대전화, 철학과 통화하다』, 책세상, 2007. 184.

68)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김상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1장 참조.

69) 마크 포스터, 김성기 옮김, 『뉴 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1994, 참조.

70) G. Deleuze et F. Guattari, *L'Anti-Oedipe* : 최명관 옮김, 앙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2000, 참조.

71) 김재희, 「질베르 시몽동에서 기술과 존재」,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 2013. pp. 175-206 참조.

능성을 주체에게서가 아니라 주체 이전의 발생적 과정과 생성 조건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기계가 동등한 위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론적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가능성에서 볼 때 기술적 대상은 인간적 필요에 부합하는 단순한 인공물이 아니다. 기술적 대상은 단번에 조립 완성되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마치 생명체처럼 계통발생적 계보를 갖는 생성적 존재자로서 그 나름의 방식으로 발생과 진화를 겪는다. 즉, 기술적 대상들의 발생과 진화는 인간의 필요나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 제기된 양립불가능성과 과포화 된 불일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내적 필연성에 따라 전개된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concrétisation)하는 기술적 대상은 따라서 인공조립물이라기보다는 과학적 인식에 부합하며 객관적 자연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물리화학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몽돈은 인간이 기술의 발달 앞에 수동적으로 있는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그에 따르면 조정자나 발명가는 오히려 기계들 가운데서 기계들과 공존하며 기술적 활동 자체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 그리고 기술적 대상들의 구체화에 인간의 기술적 활동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술적 대상 안에는 이미 ‘인간적인 것’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대상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 물리화학적 시스템으로서 자연적인 것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기술적 활동이 스며들어 있는 발명물이라는 점에서 인간적인 것과도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적 대상들은 그 자체로 자연과 인간의 혼합물이며, 그 구조와 작동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하이데거는 정보 기술의 시대야말로 인간의 존재론적 소외가 극에 달한다고 우려했지만, 이와 반대로 시몽돈은 오히려 정보 기술이야말로 사회적 개인들의 분리와 소외를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근원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해한다. 기계들의 작동과 조작 원리에 대해 인식하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기계들을 매체로 정보를 수용하고 전달하며, 기계들을 조정하고 발명하는 기술적 활동이야말로 인간의 세계에 대한 관계 역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몽돈은 이렇게 이해된 기술이야말로 종교와 동등하고 윤리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의 세계 내 존재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나 윤리의 이름으로 기술을 폄하하고, 기계와 인간을 대립시키며, 기계들을 소외시켜온 ‘인문학적 문화’는 이제 기술을 인간의 세계 내 존재 양식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하는 ‘기술공학적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시몽돈은 주장한다. 산업 시대에는 기계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주로 개체상호간 관계로 이루어져 소외가 발생하고 공명과 소통이 불안정했다. 그러나 아이폰과 인터넷이 등장하게 된 기술적 상상력 시대에는 사회적 배치와 분리를 넘어서는 개체초월적인 관계가 실현되면서 집단적 공명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sup>72)</sup>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기술은 결여된 인간을 강화하는 보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매체로서 인간 사회의 새로운 구조화와 존재론적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정보 사회에서도 여전히 정보로부터의 소외가 인간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시몽돈은 ‘기계학’과 ‘보편적 기술공학’이라는 기술학의 수립을 주창하며, 인문교양교육에 맞먹는 기술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술적 상상력을 물리적 조건으로 하는 인간 사회가 균형 잡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적 정보의 균질한 소통이 요구되기

72) G. Simondon, *L'individuation psychique et collective*, Paris, Aubier, 1989, p.127. 김재희, 「질베르 시몽돈에서 기술과 존재」,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 2013. 175-206) 108에서 재인용.

73) 이상 김재희, 「질베르 시몽돈에서 기술과 존재」,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 2013. 175-206 1 참조.

때문이며, 이는 또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기본적인 기술적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sup>74)</sup>

시몽동은 “휴머니즘이란,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 낯선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 존재자에게 상실되었던 것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되돌려주는 의지”<sup>75)</sup>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이런 “휴머니즘은 단번에 정의될 수 있을 하나의 독트린도, 심지어 하나의 태도조차도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각각의 시대가 소외의 주된 위험을 겨냥하면서 자신의 휴머니즘을 발견해야만 한다.”<sup>76)</sup> 만약 ‘인간-기계 양상불’의 포스트휴먼 사회가 ‘새로운 휴머니즘’으로서의 포스트휴머니즘을 발견해야한다면, 어떤 기술적 양상불을 매개로 조직화된 집단적 관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 네트워크의 증가하는 힘과 더불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 안의 그 무엇이 개체초월적 관계망으로 조직화되는지가 결국 포스트휴먼 집단의 성격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sup>77)</sup>

### III. 디지털인문학과 교양교육

CMC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들을 위한 인문학이나 인문학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의 방향을 탐색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인문학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란 정보기술을 이용한 인문학 연구나 인문학 교육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저작 활동이다.<sup>78)</sup> 이제 디지털인문학은 인문학에서의 단순한 디지털 툴의 이용이나 가공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문학이 예술이나 사회과학 등 여타 분야들과 융합되며 확장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sup>79)</sup>. 즉, 초창기 디지털인문학이 과거의 인쇄물들을 디지털화 작업에 주력했다면, 오늘날 디지털인문학은 처음부터 디지털로 자료를 만들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조합하고 상호작용 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과 연구 영역 및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80)</sup> 더 나아가 CMC를 통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 어떤 변화를 올지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up>81)</sup> 예를 들어 시각화기술이

74) 김재희, 「포스트휴먼 사회를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정치학」, 『범한철학』72, 2014, 387-414 중 419 참조.

75) Simondon, Gilbert. (1958), (1989a)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Aubier.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김재희 옮김. 그린비. 2011. p. 148.

76) Simondon의 위와 같은 책 p.150.

77) 김재희, 「포스트휴먼 사회를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정치학」, 『범한철학』72, 2014, pp. 387-414 중 410 참조.

78)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제2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pp. 9-26쪽 참조.

79) Burdick, A., Drucker, J., Lunenfeld, P., Presner, T., & Schnapp, J., *Digital Humanities*. Cambridge, MA: MIT Press. 2012 참조.

80) Presner, Todd., “Digital Humanities 2.0: A Report on Knowledge”, *Connexions*, Apr. 18. 2010 참조.

기존의 활자 중심 인문학에 물고 올 변화에 대한 탐구<sup>82)</sup>나,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및 지리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 등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공간 인식과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현상적이고 존재론적인 연구<sup>83)</sup>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베리는 디지털 기술은 단지 인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여타의 학문분야에도 그 학문 대상들에 대한 존재론 및 인식론적 차원의 새로운 이해를 촉발함으로써 그 분야 연구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다.<sup>84)</sup>

그런데도 디지털인문학에 대해서 전통적인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디지털 매체의 가능성을 과장한 새로운 판매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sup>85)</sup> 또 어떤 이들은 디지털인문학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진리(new truth)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하면서도, 디지털기술은 단지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고 전통적인 인문학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하는 혼란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sup>86)</sup>

과학적 방법의 효과가 철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모든 영역의 연구에 적용되어야 '미래지향적' 학문이 된다고 믿는 과학주의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sup>87)</sup> 그러나 디지털로 표현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인문학의 고유한 논리(Logik)와 전개방식과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인문학이나 디지털교양교육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교육되기 힘들 것이다. 이미 1960년대 말에 드레퓌스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하이데거의 존재론 등에서 다루어진 인간존재에 대한 통찰과 그것을 수행한 인간의 지성은 결코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88)</sup> 그것들은 비가시적인 것(l'invisible), 즉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계량화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89)</sup>

'본디 것'인 인문학의 기준에서 볼 때 디지털인문학은 부차적인 작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sup>90)</sup>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인문학은 CMC에 의해 확장된 인간존재와 그 세계를 탐구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이런 탐구에는 전통적인 인문학적 지식 이외에 디지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디지털인문학은 기존의 인문학이 다룰 수 없는 지점까지 인간과 그 세계를 탐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81) Evans, L. & Rees, S., "An Interpretation of Digital Humanities". *Understanding Digital Humanities*, Ed. David M. Berry,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12 참조.

82) Klocubar, A. "All Your Database are Belong to Us'y: Aesthetics,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The Computational Turn*. 2011 참조.

83) Klocubar, A. 위와 같은 책 참조.

84) Berry, David M., "The Computational Turn: Thinking About the Digital Humanities". *Culture Machine*. Vol 12. 2011 참조.

85) Kirsh, Adam., "Technology Is Taking Over English Departments: The false promise of the digital humanities". *New Republic*. 2014 참조.

86) Fish, Stanley., "Mind Your P's and B's: The Digital Humanities and Interpretation." *The New York Times*. 2012 참조.

87) M. Ryder, "Scientism". *Encyclopedia of Science Technology and Ethics*,

3rd ed. MacMillan, 2005 참조. 1992년 드레퓌스는 『컴퓨터가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저서를 출간한다. H. Dreyfus,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 Cambridge, MA: MIT Press, 1992 참조.

88) H. Dreyfus, *Alchemy and AI*, RAND Corporation, 1965 참조.

89) 박치완·김기홍, 「디지털인문학, 인문학의 창발적 변화인가?」, 『현대유럽철학연구』, (2015) Vol. 38; p. 185 - 219 중 p. 207 참조.

90) 박치완·김기홍, 「디지털인문학, 인문학의 창발적 변화인가?」, 『현대유럽철학연구』, (2015) Vol. 38; pp. 185 - 219 중 p. 189ff. 참조.

앞에서 살펴본 대로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과거의 독점적 매체인 인쇄물은 점점 멀티미디어에 흡수되고 있으며 인문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영역의 지식들은 디지털 기술 및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이책을 신성시하는 인문학자들의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과 인문학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이 디지털 매체를 거부하면, 인문학과 교양교육은 도태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학문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이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의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인문학과 교양교육은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하며, 인쇄매체 시대에 성장한 교수진의 변화와 실천적 행동을 요청할 시점이다.<sup>91)</sup>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인쇄된 텍스트를 읽고 쓰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CMC 시대의 학생들은 이전 세대보다 텍스트를 비판적이고 심도 있게 해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92)</sup> 대학 교양교육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 교육에 적용한 텍스트 해석법을 CMC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여 이러한 학생들이 웹을 읽고, 쓰고, 해석하고, 식별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웹이 일상을 지배하는 CMC 시대에는 학생들이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로서 성장할 위험도 있지만,<sup>93)</sup> CMC는 학습자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 공동체와 연결해줌으로써 학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나 지식제공자에게 접근하여 학습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며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sup>94)</sup> 대학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인문학의 세부 주제를 다룰 때 CMC를 이러한 방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디지털인문학은 활자 중심의 재래식 인문학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탐구방식을 자극한다. 그런데 대학이 보유한 인문학과 교양교육의 지적 재산 대부분은 활자 중심의 재래식 인문학에서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사고 능력과 디지털인문학의 새로운 사고 능력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해줘야한다.<sup>95)</sup> 즉, 대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르쳐야하는 것이다.<sup>96)</sup>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론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한다. 이러한 방향은 전통적인 인문학에서도 추구하는 가치이다.<sup>97)</sup> 86) 따라서 이러한 가치는 디지털 환경

91) Jon Saklofske, Estelle Clements, Richard Cunningham, "They Have Come, Why Won't We Build It? On the Digital Future of the Humanities",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p. 330 참조.

92) Tanya Clement, "Multiliteracies in the Undergraduate Digital Humanities",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pp. 365~366 참조.

93) Tanya Clement의 위와 같은 글 p. 365 참조.

94) Lisa Spiro, "Opening Up Digital Humanities Education",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p. 363 참조

95) Simon Mahony & Elena Pierazzo, "Teaching Skills or Teaching Methodology?",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p. 224. 참조.

96) David Melville, Cliff Allan, Julian Crampton, John Fothergill, *Higher Education in a Web 2.0 World,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Changing Learner Experience to the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2009. ([http:// www.jisc.ac.uk/media/documents/publications/heweb20rptv1.pdf](http://www.jisc.ac.uk/media/documents/publications/heweb20rptv1.pdf)). (2016/02/11) 참조.



에서도 인문학자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은 젊은 세대들이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조화시키면서 세계시민으로 살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준비해주어야 한다. 킬은 이런 준비를 하는 데 디지털인문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p>98)</sup>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디지털인문학의 역할을 대학의 교양교육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코흐는 디지털인문학에서 인문학과 정보과학을 접목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과목들이 교양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99)</sup>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교양교육에서 먼저 디지털인문학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민춘기는 예를 들어 가칭 ‘디지털인문학입문’, ‘인문정보학개론’,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아트이해’와 같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0)</sup>

CMC는 인문학과 교양교육의 대상과 범위, 방법론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을 소통시키고 공유하는 데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 CMC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정신과 공유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학교양교육은 세계시민정신이나 공유의 가치 등 CMC 시대에 맞는 가치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문학자들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활용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것 못지않게 인문학은 그 본분에 걸맞게 디지털에 의해 확장된 인간존재와 그 존재의 사고와 행동방식, 가치지향(새로운 규범의식), 한계를 파악하고 다루는 데 집중해야만 한다. 이하에서 필자는 디지털에 의해 변화된 인간의 삶에 대해서 CMC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그런 변화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제안해 볼 것이다.

## V. 우리는 혼합환경에서 살고 있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리고 집을 나와 길을 가면서도, 전철 안에서도, 연인과 함께라도, 잠들기 직전에도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입해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이성의 몸도 아닌 디지털 기기다. 일찍이 그 어떤 연결가나 책도 이토록 사람들을 붙잡지는 못했다.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안에는 현실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도박장 같은 오락만의 세계만도 아니고, 도서관처럼 정보만을 주는 세계도 아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

97) Simon Mahony & Elena Pierazzo, "Teaching Skills or Teaching Methodology?",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p. 224 참조.

98) Melanie Kill, "Wikipedia, Collaboration, and the Politics of Free Knowledge",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p. 389 참조.

99) Christian Koch, "On the Benefits of Interrelating Computer Science and the Humanities: The Case of Metaphor",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25(5), 1991, p. 294 참조.

100) 민춘기,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의 변화 가능성 모색」, 『용봉인문논총』 (2016) Vol. 48; pp. 59-89 중 p. 76. 참조.

까지도 존재한다. 이러한 세계는 단순히 현실을 연장한 것도 아니고 변형한 것도 아닌 새로운 세계다. 나는 그 세계 속을 다양한 인격체로서 누비며 때로는 경청하고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증폭된 욕망을 배설한다.

CMC는 현실보다도 많은 위안과 쾌락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세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을 절반 이상을 접고 사는 꼴이다. 휴대폰을 빼앗는 것은 현실이라는 좁은 감방에 가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책을 통해 세상을 학습하며 성년이 된 후에야 디지털 세계에 적응해 살아가는 기성세대와 달리 글자를 익히기도 전에 디지털 기기들을 반려자로 삼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들은 이전 세대와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다.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은 삶이 다르다는 것이고, 삶이 다르다는 것은 존재가 다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다른 존재에게는 필요한 교육 또한 다를 것이다.

## 1. CMC와 가상공간의 특성

마크 듀즈(Mark Dueze)는 미디어가 인간의 삶 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일상의 경험과 자아 정체성이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서 매개되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그 존재 자체도 미디어 의해서 특징지어진다고 말한다.<sup>101)</sup> 그렇다면 CMC와 같은 가상공간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가상공간의 특징을 1) 탈시간성, 2) 탈공간성, 3) 탈신체성, 4) 탈일방성, 5) 탈언어성, 6) 탈인격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sup>102)</sup>

1) **탈시간성**이란 디지털 저장기술의 발달로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령 우리는 이메일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 비동시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실시간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동시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로써 우리는 타인과 소통할 때 옛날처럼 기다릴 수도 있고, 전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듯이 즉시 소통할 수도 있다.

2) **탈공간성**이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 혹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탈신체성**이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몸이나 얼굴, 목소리와 같은 신체성을 노출시키지 않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CMC가 제공하는 탈신체성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준다. CMC의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CMC에서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거나 현실의 자신을 선택적으로 편집해서 제시할 수 있다. 융(C. G. Jung)이 'persona' 개념을 통해서 시사했듯이 원래 인간이란 하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산다. CMC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차원에서 가면들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이런 성향을 극대화한다. CMC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며, 고졸자가 금융전문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CMC

101) Deuze M., *Media work*. Cambridge: Polity Press, 2007, 참조.

102) 이상『사이버 윤리와 인간이해』, 이현숙·김병철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1~21 참조.

는 현실세계가 인간 각자에게 부여한 존재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형상화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정체성으로 혼합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게 해준다.

여기에 하이퍼리얼리티 기술이 가미되면, 현실의 자기보다도 더 실감나는 혼합환경 속에서 새로운 자기로 살 수도 있다. 일찍이 현미경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며, 우리의 삶을 그 세계에까지 연장시켰다. 인류는 이미 이렇게 과학기술에 의해 연장된 세계에 익숙하다. 이제 인간은 컴퓨터 앞에서 현실에서는 본적이 없는 육체의 내면과 움직임을 본다. CMC에 등장하는 성은 환상이 아니라 실재보다도 더 실재적인 현실이며, 자연상태의 개인이 도달할 수 없는 내밀한 육체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포르노는 성의 공간에 하나의 차원을 덧붙이면서 성을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것으로 만든다.”<sup>103)</sup> 이렇게 하여 CMC를 통해서 인간은 하이퍼리얼리티가 발산하는 매혹에 빠져든다.

4) **탈일방성**이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진리’를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CMC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표현할 수 있다. 권위를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놓은 사람은 CMC에서 즉시 ‘스팸처리’ 될 수 있다. 주관성이 개입되는 인문학적 담론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적 담론에서도 그렇다. 학생들은 교수나 그 밖의 전문가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들을 궁지로 몰 수 있는 것이다.

5) **탈언어성**이란 자연언어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변형이나 키보드의 특수 문자 조합 등을 통해 감정이나 표정, 제스처 등을 표현하는 독특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탈언어적 소통은 전통적인 소통방식을 침범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CMC가 제공하는 탈언어적 소통방식과 기존의 자연언어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CMC에서 이모티콘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탈언어적 기호와 자연언어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표현의 다양성과 보편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6) **탈인격성**이란 CMC에서는 인간과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뿐 만아니라 인간과 컴퓨터,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됐다는 뜻이다. 이세돌 사범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에서도 보았듯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로봇과 마치 사람과 소통할 때처럼 행동하는 것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사람이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인터넷에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와 사회적 인터페이스(interface)<sup>104)</sup>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CMC에서 확인되는 이런 현상은 앨런 튜링(Alan Mathison Turing)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인간존재만의 고유성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과거에는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이런 경험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업적 거래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점점 더 자주 이런 경험을 하면서 생활세계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103) 장 보드리야르, 『유혹에 대하여』, 배영달 역, 백의출판사, 2002, p. 41.

104)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사물의 경계가 되는 부분과 그 경계에서의 통신 및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개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7557&cid=40942&categoryId=32828> 참조.

이상과 같은 CMC의 특징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기도 한다. CMC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는 다원성, 공유(카피레프트)와 연대의식,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라고 잠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이런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줘야한다.

그런데 CMC 환경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의 자아정체성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존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인문학과 교양교육은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복합정체성**에 주목해야만 한다. 20세기 초까지 인류는 개인의 정체성을 신분과 직업, 성별과 인종, 종교, 나이, 교육, 지역, 이념, 언어에 따라 규정하고, 이를 고정시키려고 했다. 20세기 초까지 동성애가 형벌의 대상이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는 주어진 정체성을 벗어나려는 개인을 용납하지 않았다.<sup>105)</sup> 그런데 피투적 존재(a thrown being)인 인간에게 이런 정체성의 대부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자신이 선택하고 스스로 만든 것이 순수한 자기 자신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자신을 규정한 정체성들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도 말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각 개인은 항상 자신을 벗어나고 싶은 탈존(Ex-istenz)의 욕망이 있다.

CMC가 제공하는 탈신체성과 익명성, 탈공간성, 탈시간성은 인간의 이런 욕망을 큰 어려움 없이 실현시켜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타고난 성 역할을 해체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 역할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젠더 벤딩(gender-bending)이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 속 아바타를 통해서 컴퓨터프로그래머가 제공한 가상의 자아를 체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젠더 벤딩의 경우에는 젠더 벤딩의 당사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성역할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래 원하는 성역할을 형상화하고 그 역할로 복합현실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젠더 벤딩은 단지 게임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장애를 이기고 본래적 자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해방적이고 자아실현적인 진지한 도전인 것이다. 젠더 벤딩이 실제 자아정체성을 위협하거나 현실도피를 부추기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은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아정체성을 고정된 무엇으로 확정하거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후에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녀의 성차나 근친상간 금지가 전제하는 이성애 중심주의 등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사법 권력을 토대로 한 것일 수도 있다.<sup>106)</sup> 생산양식이 '정상가족'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서구사회가 보여주듯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면서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인문학과 교양교육은 CMC 환경이 실현시킨 복합적인 자아정체성의 의미와 지향점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문학과 교양교육이 가르쳤던 인간론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또한 전통적 인간관과 새로운 인간관을 비교 검토하는 일은 인문학과 교양교육의 새롭고 거대한 교육내용을 이룰 것이다.

---

105)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 앨런 튜링(1912~1954)도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었다. 징역형과 화학적 거세형 중 선택을 해야 했던 튜링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거세를 선택하여 1년간 에스트로젠 주사를 맞았다. 1954년 6월 8일 죽은 채로 발견된 그의 몸에서는 치사량의 사이안화 칼륨(청산가리)이 검출됐다.

106)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37쪽 참조.

## 2. CMC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와 교양교육

인터넷 매체는 이용자가 선택하고, 제시하고, 제거하고, 규모를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줌으로써 통제력과 지배력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경험된 통제력과 지배력은 만족감과 우월감, 자존감을 CMC에서 충족시켜준다. 교양교육은 이렇게 해서 강화된 만족욕구와 인정욕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현실세계에서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한다. CMC에서 강화된 만족욕구와 자존감을 무시한다면, 많은 이들이 CMC로 도피하거나 현실에서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생활하다가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CMC가 제공하는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 하이퍼리얼리티는 현실세계에서는 축제 등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허용되는 일탈적인 행위를 수시로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일탈행위가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 한,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CMC에서 쉽고 빈번하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이들은 현실세계에서도 자신의 욕망에 좀 더 솔직해지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CMC를 통해서 형성된 인간관계는 과거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수직적이고 일극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사이버 문화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참여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킨다. 문화적인 주체의식이 강화된 사회구성원들은 CMC가 제공하는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일탈적인 행동과 일탈적인 사고를 빈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일탈적인 문화를 본질 형이상학적인 인간론에 근거한 전통적인 규범에 따라서 비판할 수만은 없다. CMC 시대 교양교육은 전통의 규범을 비판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새로운 인간의 삶의 양식을 고려한 규범을 탐색하면서 '일탈'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시도들을 평가할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 줘야한다.

CMC가 제공하는 익명성과 신속성, 편리성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타율에 의해 행동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CMC에서는 자율성의 가치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의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 책임의 크기는 자유의 크기에 비례한다. 익명성과 탈신체성, 탈시간성, 탈공간성, 탈언어성 등 CMC 환경을 통해 확장된 자유만큼 인간의 책임도 늘어난다. 교양교육은 이 책임의 성격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폐쇄적 사회의 국가권력은 가능하면 많은 통제수단을 확보해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인하려한다. 그 통제수단들 중 많은 것들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것이거나 기득권을 위한 것이지 사회적 존립이나 생산성과 무관한 것이다. 성과 관련된 규제들이 그렇다. 성인에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되는 성인물에 성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이를 어길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봉쇄하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국가의 통제력이 개인의 생활 곳곳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크다. 국가권력의 통제권이 프라이버시의 영역에도 미친다는 것을 체험한 개인들은 국가의 통제와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서도 개인의 자연적 본능을 억압하는 규제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는 한정적이다. 그 지배력이 미치지 않거나 눈감아주는 곳에서 개인들은 음성적으로 욕망을 해소한다.<sup>107)</sup>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공공적 규범에 대한 회의주의가 확산

107) 성인들에게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나라는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아시아 인터넷 이용자의 50%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그중 한국인들의 성인 사이트 접속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사이버 윤리와 인간이해』, 이현숙·김병철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216 참조.

되고, 개인들은 불필요한 죄의식 동시에 반항심을 키우게 된다. 이런 병리적인 사회에서도 개인들은 매일 CMC로 국경을 넘어 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접한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체험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개인들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통제를 가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며 CMC 시대에 걸맞은 세계시민적 가치와 목표, 규범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쇄 미디어의 출현은 다양한 언어를 표준화시키면서 사람들을 국가 단위로 분열시키고, 국민적 정체성과 국민적 문화를 출현시켰다. 그런데 수잔 반즈(Susan B. Barnes)에 따르면 인터넷은 인터넷서널리즘과 포퓰리즘을 강화시켰다.<sup>108)</sup> 인터넷으로 인해 사람들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서 서로의 관심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형성된 대중들은 인터넷을 통해 계속 연결되어 살아가고 싶어 한다. 인터넷 번역기술과 통역기술<sup>109)</sup>이 더욱 발전한다면, 현재와 같은 국가개념은 크게 희석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국가적인 정체성과 초국가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지구촌 시민이 기존의 국가개념을 의심할 것이다. 일찍이 맥루한은 전자미디어 체계가 '글로벌 빌리지'라는 형태로 세계를 재창조 한다고 주장했다.<sup>110)</sup> 그는 글로벌 빌리지를 통해서 균질성을 극복하고 인간이 잃어버렸던 이질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11)</sup> 사람들은 고향상실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근대국가 출현이후 잃어버렸던 고향을 되찾는 혼란을 경험할 것이다. 인문학과 대학교양 교육은 다양한 국가언어로 기록된 학문적 자산들이 지구촌 시민사회에서 보다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통용될 경우에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 추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평가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도 극복하고 언어적 한계도 극복하며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판단하여 응용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의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다원주의가 강조되는 포스트모던 시대라도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관과 인간관이 있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CMC 환경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로 인해 가치관과 인간관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혼란이 '뭐든지 괜찮다'는 식의 반사회적이고 반문명적 허무주의와 퇴폐주의로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관과 인간관을 대학이 이전 세대보다 더 강조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CMC 시대 교양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양교육 담당자들이 CMC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가치관과 인간관을 철저히 검토하여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을 구상해야 한다. 이것이 CMC 시대 교양교육 담당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일은 교육 매체로서의 CMC를 기술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치관과 인간관, 미의식, 세계관 등 인문적 주제들을 연구한 전공자들이 맡아야 할 역할인 것이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인간관, 세계관 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며 새롭게 제

108) Barnes, S. B.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uman-to-Human Communication Across the Internet*. Boston: Allyn and Bacon, 2003 참조.

109) 현재 인터넷 자동번역기술과 자동통역기술은 영어권 언어들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가령 웨이버리 랩스(Waverly Labs)라는 회사가 개발한 '파일럿(Pilot)'이라는 통역기를 헤드폰처럼 착용하고 대화를 하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가 서로 동시에 통역된다. 컬럼비아대학 언어학자 존 맥호터는 자동번역기술과 자동통역기술의 발달로 머지않아 통역 앱의 도움으로 외국인끼리 소통을 하게 될 것으로 예언한다.

110) 맥루한·펄링 피오르, 『미디어는 맛사지다』, 김진홍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p. 67 참조.

111) 맥루한, 『구텐베르크 은하계』, 임상원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 279 참조.

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양 교육담당자들은 CMC 환경을 낳은 자본주의 시장소비 사회와 그 인간존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넘어설 역량을 갖춰야한다. 자본주의 시장소비사회가 주는 풍요를 무비판적으로 좇으면서 학생들 앞에서는 마치 도덕군자처럼 전통적인 가치관과 인간상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교육자는 자가당착에 빠질 뿐만 아니라 CMC 환경에서 성장한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 VI. 글을 끝내며

2006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대학 혁신: 7대 유형별 전략』이란 책은 대학이 시장 원리에 부응하는 하나의 산업임을 천명한다.<sup>112)</sup> 이제 대학은 하나의 좋은 상품이 되어 학생, 기업, 국가라는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에 몰린다.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성과물을 생산하는 대학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도 대학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본주의 시장에 종속되고 만다.<sup>113)</sup> 이제 대학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나 인간성을 함양해줄 지혜를 탐구하는 것은 시대에 뒤 떨어진 일처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대학이 시장에 편입되어 대학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화이트헤드가 규정했듯이 근대이후 과학의 세계는 무목적, 무의미, 무가치한 세계이다. 이런 세계에서 과학에만 모든 것을 맡기면 허무주의와 쾌락원칙이 인륜성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맞서 인간성을 고양할 전투적이고 예언자적인 인문학이 요구된다. ‘교양’이라는 명목으로 실용, 도구, 기초과목들이 교양과목의 자리를 차지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전공교육에 비해 교양교육은 좀 더 보편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양교육은 지식의 세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편화될 수 없는 각 개인의 실존을 움직이는 문제들을 감지하여 자신의 삶에 반영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sup>114)</sup> 이렇게 볼 때 대학의 교양교육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개론적인 수준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한 지성인들이 자신의 전공 지식과 기술을 포괄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주는 것이다. 30년에 걸쳐 교양교육 개혁을 단행해 선공한 알베르노 대학은 교양 교과과정이 추구해야할 능력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115)</sup>

112) 류지성 외, 『대학혁신. 7대 유형별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6, 30쪽.

113) 문성훈, 「시장에 의한 대학 식민화와 대안적 합리성」, 한국철학회, 『철학』 100집 참조, 2009년 9월. 문성훈의 「교양교육 특성화와 철학의 역할」(철학 111, 2012.5, pp. 187-208 중 p. 22)에서 재인용.

114) 정영근, 「교원양성교육의 전문화와 대학의 교양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14. Vol. 19, No. 1, pp. 25~41, 중 26 ff. 참조.

115) Riordan, T. & Sharkey, S., *Hand in Hand: The Role of Culture, Faculty Identity, and Mission in Sustaining General Education Reform*. In: Gano-Phillips S. & Barnett, R. W. (ed.) 2010, *A Process Approach to General Education Reform*, 199-220 참조. 「과정과 문화 중심의 교양교육 개선」(민춘기, 김순임, 『교양교육연구』 6(3), 2012.9, 11-47 중 p. 37)에서 재인용.

- 1) 소통 (Communication)
- 2) 분석 (Analysis)
- 3) 문제해결 (Problem solving)
- 4) 의사결정에서 가치 중시 (Valuing in decision-making)
- 5)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 6) 글로벌 관점 개발 (Developing a global perspective)
- 7) 효과적인 시민정신 (Effective citizenship)

이러한 능력들 중 많은 부분이 필자가 CMC 환경의 특징과 그것에 맞는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에서 지적한 것들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CMC 시대 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육대상자 개별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과 상황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한다. 국가나 교육당국이 정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교양교육은 자율성과 개별성이 강조되는 CMC 시대에는 학생들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바뀐 소통방식과 그에 따른 인간존재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한다. 전통적으로 교양교육의 주요 텍스트로 사용되는 고전들에 대해 CMC 시대에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검토해야한다. 고전들은 CMC 시대에는 설득력이 없는 가치관, 인간관, 미의식, 규범, 문제의식과 대응방식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CMC시대 인문학자들은 인쇄매체 중심의 인문학에 갇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인문학에 적극 활용 하고 나아가 그것이 몰고 올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변화를 탐구하여 연구와 교육에 반영해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 참고문헌

- 고현범, 『휴대전화, 철학과 통화하다』, 책세상, 2007.
- 김재희, 「질베르 시몽동에서 기술과 존재」,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 2013, 175-206.
- 김재희, 「포스트휴먼 사회를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정치학」, 『범한철학』72, 2014, 387-414.
-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제2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p. 9-26.
- 류지성 외, 『대학혁신. 7대 유형별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6.
- 마르틴 하이데거, 『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2008.
- 마크 포스터, 김성기 옮김, 『뉴 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1994.
- 마셜 매클루언,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김상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맥루한·팽팽 피오르, 『미디어는 맛사지다』, 김진홍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맥루한, 『구텐베르크 은하계』, 임상원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민춘기,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의 변화 가능성 모색」, 『용봉인문논총』 (2016) Vol. 48; pp. 59 - 89.
- 민춘기·김순임, 「과정과 문화 중심의 교양교육 개선」, 『교양교육연구』 6(3), 2012. pp.11-47.
- 문성훈, 「시장에 의한 대학 식민화와 대안적 합리성」, 한국철학회, 『철학』 100집 참조, 2009년 9월.
- 문성훈, 「교양교육 특성화와 철학의 역할」 『철학』 111, 2012. 187-208.
- 배식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2000.
- 박인철, 「기술시대와 현상학: 생활세계와 기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 제75집, 2003, 127-152.
- 박치완·김기홍, 「디지털인문학, 인문학의 창발적 변화인가?」, 『현대유럽철학연구』, 38, 2015: 185 - 219.
- 이중원·홍성욱 외, 『필로테크놀로지를 말한다』, 해나무, 2008.
- 이현숙·김병철, 『사이버 윤리와 인간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조현욱 옮김, 이태수 감수, 김영사, 2015, 570.
- 장 보드리야르, 유희에 대하여, 배영달 역, 백의출판사, 2002.
- 정영근, 「교원양성교육의 전문화와 대학의 교양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1), 2014: 25~41.
- 장 이브 고프, 『기술철학』, 황수영 역, 한길사, 2003.
-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 Barnett, R. W. (ed.) *A Process Approach to General Education Reform*, 199-220, 2010.
- Barnes, S. B.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uman-to-Human Communication Across the Internet*. Boston: Allyn and Bacon, 2003.
- Berry, David M., "The Computational Turn: Thinking About the Digital Humanities". *Culture Machine*. Vol 12. 2011.
- Burdick, A., Drucker, J., Lunenfeld, P., Presner, T., & Schnapp, J., *Digital Humanities*. Cambridge, MA: MIT Press. 2012.
- Christian Koch, "On the Benefits of Interrelating Computer Science and the Humanities: The Case of Metaphor",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25(5), 1991.
- David Melville, Cliff Allan, Julian Crampton, & John Fothergill, *Higher Education in a Web 2.0 World,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Changing Learner Experience to the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2009.
- Deuze M., *Media Work*. Cambridge: Polity Press, 2007.
- Evans, L. & Rees, S., "An Interpretation of Digital Humanities". *Understanding Digital Humanities*, Ed. David M. Berry,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2012.
- Fish, Stanley. "Mind Your P's and B's: The Digital Humanities and Interpretation." *The New York Times*. 2012.
- G. Deleuze et F. Guattari, *L'Anti-Oedipe* : 최명관 옮김, 『앙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2000.
- G. Simondon, *L'individuation psychique et collective*, Paris, Aubier, 1989.
- H. Dreyfus,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 Cambridge, MA: MIT Press, 1992.
- H. Dreyfus, *Alchemy and AI*, RAND Corporation, 1965.
- Jon Saklofske, Estelle Clements, & Richard Cunningham, "They Have Come, Why Won't We Build It? On the Digital Future of the Humanities",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 Klocubar, A. "All Your Database are Belong to Us'y: Aesthetics,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The Computational Turn*. 2011
- Kirsh, Adam., "Technology Is Taking Over English Departments: The false promise of the digital humanities". *New Republic*. 2014
- Lisa Spiro, "Opening Up Digital Humanities Education",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 M. Ryder, "Scientism", *Encyclopedia of Science Technology and Ethics*, 3rd ed. Macmillan, 2005
- Presner, Todd., "Digital Humanities 2.0: A Report on Knowledge", *Connexions*, Apr. 18. 2010
- Melanie Kill, "Wikipedia, Collaboration, and the Politics of Free Knowledge",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 Riordan, T. & Sharkey, S., *Hand in Hand: The Role of Culture, Faculty Identity, and Mission in Sustaining General Education Reform*. In: Gano-Phillips S. & Barnett, R. W. (ed.) 2010.
- Simon Mahony & Elena Pierazzo, "Teaching Skills or Teaching Methodology?",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 Tanya Clement, "Multiliteracies in the Undergraduate Digital Humanities",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2012.



토론 4

**신충식**  
(경희대학교)